

# Style 조선일보

JUNE 2024  
vol. 270



*Cartier*



GO EUN KIM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CHANEL

J12  
IT'S ALL ABOUT SECONDS



- 09 **WRIST VALUE** 짧은 소매에 심플한 임팩트를 부여하는 아이코닉 밴글 컬렉션.
- 11 **GET SPLENDOR** 브랜드의 아이코닉 모티브 패턴으로 가득한 롱 네크리스.
- 12 **SLOWLY BUT SURELY!** 팬데믹 탓에 울분 무려 4년 만에 다시 찾은 당다이 페어의 모습은 약간 낯설었지만 반가웠다.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현지인의 의미 있는 관심이나 참여가 늘어났다는 분위기가 있고, 무엇보다 도시 자체의 자원이 느껴졌다. 주요 미술관에서 공들인 기획전을 열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대중에 공개하는 시기를 맞추는 등 훨씬 더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였다. 그렇게 '아트 주간'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다.
- 14 **대단다운 '아트 신(scenes)'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21세기에는 소프트 파워가 주도할 것이고, 그 핵심 축으로 문화가 꼽히는 요지의 주장은 이제 지겹게 들리기도 하지만 요즘 문화 콘텐츠의 힘이 새삼 피부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제곱미터 서비스든 공간이든 '문화화'의 내용이 빠져나고, 그 실력을 반영한 공간과 콘텐츠가 도시를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16 **MAGICAL TIME** 까르띠에는 2024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워치 컬렉션을 통해 메종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 20 **WATCHES & WONDERS 2024** 지난 4월 9일, 스위스에서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인 워치스 & 원더스 2024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의 워치 트렌드와 키워드부터 각 브랜드의 주요 워치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해 담았다.
- 32 **DRESS TO IMPRESS** 열정과 우아함을 동시에 간직한 초여름의 스타일링 포트레이트.
- 40 **MASTERPIECE ON THE FIELD** 일반 장인 정신이 깃든 혼마의 프리미엄 라인에서 베레스 시리즈 09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됐다.
- 41 **DEAR MY QUEEN** 브레게의 레인드 네이틀 라인에 찬란하고 우아한 민트 컬러의 워치가 추가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타임피스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 42 **ABSOLUTELY MAJESTIC** 다시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르 보야주 레코망쎬(Le Voyage Reconnu)가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공개됐다.
- 44 **MORE THAN DIVERSITY** '여전히 홍콩에서 자유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답하자면 "그렇다." 지금 홍콩은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 45 **SERUM GAME**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열망을 가득 담았다. 독자적인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응축한 궁극의 에센스 6.
- 46 **EDITOR'S PICK** 다가올 여름을 맞아 뷰티 새롭고 새롭게 바꾸는 시간.

# Style 조선일보

Issue.270 June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원운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l@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교열 | 이정은 정교 · 마케팅 | 박명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 · 재판 | 사법 인센 | 타라타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BVLGARI

ROMA 1884

# 작지만 강한

탄생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이번에 새로운 사이즈와 간결함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움을 지니는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을 출시했다. 오메가의 상징적인 크로노그래프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8mm라는 콤팩트한 케이스 사이즈를 완성한 것. 여기에 52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해 남성은 물론 여성을 위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탄생시켰다. 특히 어울리는 색 조합을 찾기 힘든 골드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이 조화롭게 바라에이션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칼럼 휠 메카니즘 및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오메가 3330으로 작동하며 스틸 케이스에 브라운 컬러 조합 버전도 출시된다. 문의 080-500-1848



# TIMELESS CHIC

편디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허우스의 아이코닉 백, 스몰 피카부 아이 씨유 백을 재탄생. 이기들의 '까꿍(피카부)' 놀이에서 이름을 차용한 피카부 백은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숨겨진 아름다움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라이닝이 없는 내부에 견고한 베이직 숄더가죽 파티션으로 분리한 수납공간 2개와 내부 포켓이 있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또 골드 피니시 비와 클로저 및 메탈 웨어가 허우스의 시크하면서도 클래식한 면모를 드러낸다. 핸들과 탈착 및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이용해 손에 들거나 숄더 또는 크로스 바디로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8백만원대, 문의 02-544-1925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TRUE ROMANCE

2022년에 선보인 5개 라인의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에 이어 올해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출시한다. 커진 사이즈만큼 더 화려하고 눈부신 매력을 지니는 골드 비즈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답다. 옐로·로즈·화이트, 세 가지 골드 비즈 사이에 2:3:5 비율로 비스듬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불규칙성에서 비롯된 미학을 표현했으며, 오픈워크 구조로 스톤 사이에 빛을 통과시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돋보이게 한다. 더 박하고 볼드해진 감성으로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를 마음껏 즐기게 해줄 또 하나의 셀렉션이 될 것이다. 문의 1877-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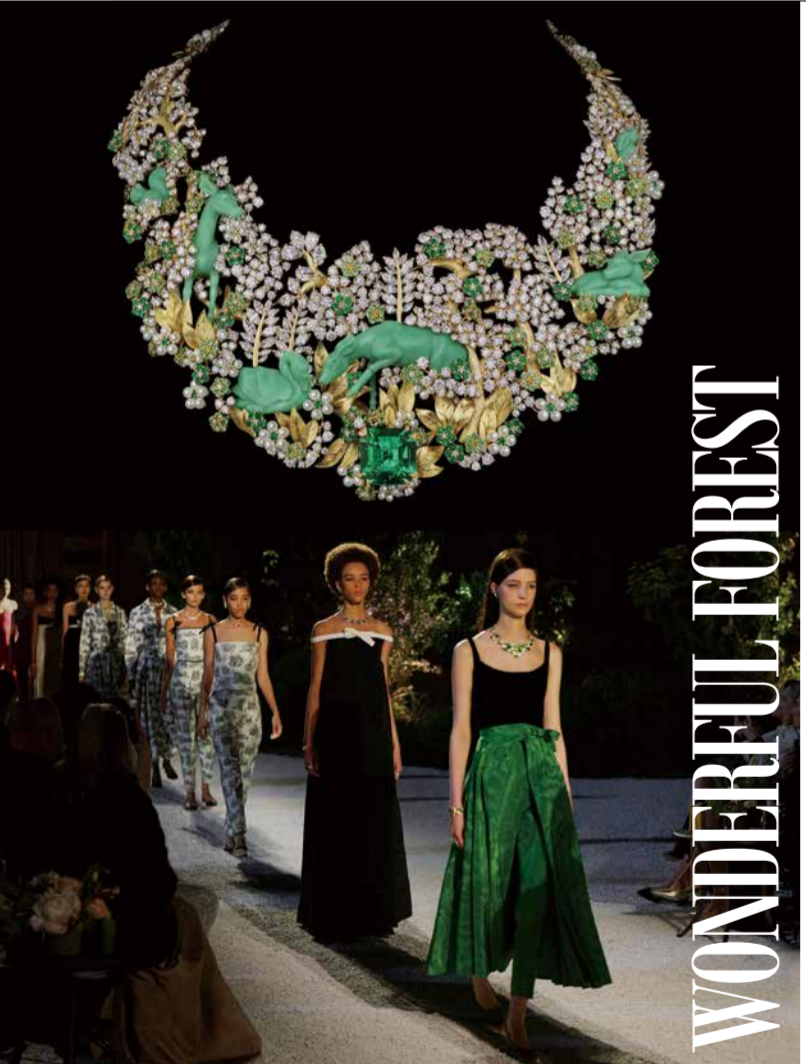


# 클래식의 영원함

시절 위치 중에서도 클래식의 대명사로 할 수 있는 프리미에르 오리지널 에디션, 파리 방돔 광장과 사텔 N5 향수병 뚜껑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케이스에 오로지 블랙과 골드만 완성한 컬러 조합까지, 모든 것이 클래식하고 모던하며 기브레넬 사텔 여사의 철학이 담겨 있다. 26.1x20x7.65mm로 여성의 손목에 딱 어울리는 사이즈기에 액세서리 대신 착용해도 손색없으며, 그 어떤 룩에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초정밀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가격은 9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에스프레소와 치즈의 의도된 만남? 어쩌면 저절로 눈썹을 치켜세우게 할지도 모를 이 이상적인 맛의 조합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는 카페 이름을 듣는다면 호기심이 발동할 커피 애호가들이 꽤 많을 듯하다. 혹은 새로운 미감을 찾는 이들이 귀를 쫓긋할 만하다. 에스프레소 맛집으로 유명한 리사르커피 창립점에서 진한 에스프레소 메뉴와 미국산 치즈가 어우러져 다양한 풍미를 보여주는 페어링 행사를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이 흥미로운 협업은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기획으로 USA 치즈를 커피, 맥갈리, 주류와 창의적으로 페어링하는 USA 치즈 페어링 시리즈의 1탄으로, 리사르커피 창립점에서 내 기지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리사르커피 박건영 비리스타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아메리카노에 각각 콜비체, 파르메산 치즈, 마일드 체더 & 페퍼잭 치즈를 페어링해 묘한 맛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세 가지 메뉴와 더불어 카페인을 원하지 않는 이들도 즐길 수 있는 '논커피' 치즈 시그니처 메뉴를 내놓았다. 바위에 걸린 실링이 이루는 대리석 무늬가 특징인 콜비체 치즈와 함께 맛보는 에스프레소 & 콜비체, 짙짙하고 강렬한 파르메산 치즈와 헤이즐넛 쿠키, 그리고 우유 거품의 조우로 부드러운 맛을 이끌어내는 카푸치노 & 파르메산 치즈, 매력적인 치즈 샌드에 씹어줄 아메리카노를 접목한 아메리카노 & 마일드 체더, 페퍼잭 등 커피 페어링 메뉴가 있고, 부드러운 질감의 마스카포네 크림치즈와 향긋한 바닐라 반이 만나 일인 가득 달콤함이 퍼지게 하는 아이스 치즈에 마일드 체더를 듬뿍 올린 치즈 시그니처 메뉴는 단독으로 즐겨도, 커피를 곁들여도 된다. 장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99길 60 리사르커피 창립점 6월 15일까지

ESPRESSO X CHEESE FROM THE USA



# WONDERFUL FOREST

피렌체에서 디올 하이 주얼리의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의 새로운 컬렉션, 디올 라마(Diorama)의 첫 번째 아이키를 공개했다. 로즈와 오렌지 블라섬 향으로 가득한 기둥을 배경으로, 무수 다음이 스중히 여겼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라인을 공개해 특별함을 더했다. 1947년부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아이코닉한 디올 코드인 투알 드 주이를 재해석해 매혹적인 동물과 식물 모티프를 더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부엉이, 사슴, 다람쥐가 서식하는 경이로운 숲을 대체로운 쟁스톤을 활용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그려냈으며, 여기에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디올 하이 주얼리의 입체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다. 또 1960년대 감성을 새롭게 담아낸 카프리 팬츠, 매혹적인 바 비스티에, 풍성하게 직조한 자카드, 무아레 파우, 은은하게 빛나는 스킵 등 눈부신 돌체 비타를 예찬하는 미러아 그라자리아 치우리의 디올 실루엣이 조화를 이뤄 더욱 환상적인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TIME CHANGES PACE



HERMÈS CUT. DOWN TO THE LAST DETAIL



Publicis ENNew

# Wrist Value

짧아진 소매에 심플한 임팩트를 부여하는 아이코닉 뱅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루터 차우데르 파이제 포제션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 소재 밴드 중앙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매종의 시그니처 포제션 세팅 링이 자리했으며 24개, 약 0.4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09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1천8백만원대, 문의 1668-1874

**가르띠에 트라니티 브레이슬릿** 세 가지 다른 소재의 화이트 핑크 옐 로 골드 링을 하나로 엮어낸 디자인으로 우아한 연결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브레이슬릿. 모던하고 세련되면서도 특별한 감성을 전한다. 1천5백만원대, 문의 1877-4326

**타피니 타피니 락 뱅클** 사랑하는 이와 의연, 약속을 상징하는 자물쇠를 모티브로 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뱅클. 18K 로즈 골드에 라온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배세팅해 화려한 포인트를 준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불가티 비제르윈 락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은 비제르윈 락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18K 로즈 골드에 나선형 스티드 디테일을 가미해 모던하고 혁신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가장 자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3천1백만원, 문의 02-6105-2120

**샤넬 화이트 주얼리 코르 크러쉬 브레이슬릿** 쿠튀르 감성이 담긴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코르 크러쉬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7톤보다 앞서서 다른 브레이슬릿이나 워치와 레어하다 좋다.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32캐럿으로 완성했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뱅클**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남녀 누구나 착용 가능한 뱅클. 정교한 각면 디자인의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우아한 매력을 자아낸다. 2천9만원, 문의 02-2150-2320

**쇼체 리앙 에비앙스 브레이슬릿** 인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애정을 담았으며 기운을 갖는 끈 같은 모티브로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핑크 골드 소재에 1.0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여개를 세팅해 빛나는 매력을 가미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2-3359 에디터 상담



프랑스 상류계 계층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아이코닉한 브레이슬릿. 99만원대.

구조적인 실루엣이 특징인 램스킨으로 완성한 체인 클러처. 12 X 11.5 X 8cm, 가격 미정 샤넬.

오묘한 빛과 질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노르웨이 핑크 보석은 200여종의 보석을 57캐럿 스톤으로 장식.

감각적인 배색이 유니크함을 선사하는 패딩 효과 스웨터 1백만원대 에트로.

전반적인 핑크톤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램스킨 소재의 미니 로킹 홀스 백. 19 X 6 X 16cm, 2백20만원 바버리.

## for her Selection

청량하고 신뜻한 무드를 베가하는 초여름날의 파스텔컬러 필레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un sang



영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신사서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원더 백. 6 X 7.8 X 0.7cm, 2백30만원 미우미우.



골드 컬러의 핑크 포인트가 되어주는 레더 소재의 긴로 걸. 가격 미정 크리시찬 루부랭.

전체적인 룩에 시크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줄 블랙스틸러스 헤어 클립 53만원 프라다.

PRADA

시원한 무드를 부여하는 투명하며 핑크 컬러의 디자인이 아이코닉한 바버리 by 에일트르스카.



감각적인 프라텔이 시선을 사로잡는 실크 소재의 키치 도자신.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유연한 핑크 컬러의 디자인이 아이코닉한 바버리 by 에일트르스카.



심플한 무드를 강조하는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완성형 J12 1천5백만원대 샤넬 워치.



옐로 골드 소재의 바티콜라이스트드 옐로 골드 미니 아이핀 6백68만원 그라프.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스오르보스키 1522-9065 에트로 02-3446-1321  
바버리 00798-44-341-257 크리시찬 루부랭 02-6905-3795  
포엠티노 02-3143-9486 파비아나 필리피 02-6960-0843  
미우미우 02-541-7443 프라다 02-3442-1830  
에실로르스카 02-501-4436 로로피아나 02-6200-7799  
인드루 02-3479-1527 그라프 02-2256-6810 샤넬 워치 080-805-9628

단정하고 우아한 핑크를 자랑하는 레온 소재의 원피스 2백98만원 파비아나 필리피.



등근 프레임과 라임 컬러감의 조합이 돋보이는 이본 G88 32만원 **젠들몬스터.**

블루 시리아아를 피베 세팅한 프레드 X 폴링가로스 포스텐 브라이딩 9백48만원 **프레드.**

레더와 스틸 소재로 완성한 M 로고 블루 레더 브라이딩 36만원 **몽블랑.**

정형안경이 개성있는 유즈는 무수한 크라운 브라운 89,900원 **폴로 스포츠 로열.**

가든 마들 단면형 브라운을 자랑하는 코넬리 폴라 18만원 **폴라.**

# for him Selection

부드러우면서 모던하고, 때로는 시크한 매력을 발산하는 파스텔컬러. 지금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는 스틸 소재로 완성한 내쉬타이머 오토매틱 GMT 41 8백76만원 **브라이딩.**

부드러운 숄더가죽으로 제작한 미니엄 캐비트. 30 X 13cm, 3백47만원 **보타가 배너타.**

피부에 고르고 얇게 밀착하는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디펜스 프레스시 455천원 **헤라.**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코튼 소재의 그랜드 테뉴 로장지 90만원 **에르메스.**

전면이 로고가 으스스한 포인트를 주는 임피 골드 더블백 오프하이트 52 X 28.5cm, 1백만원 **투미.**

100% 라미에로 제작해 땀과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코넬리 폴라 18만원 **폴라.**



(중앙부터 차례대로) 그래픽 알티 버블링라이 심플렉스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펜던트 눈부신 파베 다이아몬드로 장식화한 5개의 나비 모티브로 완성한 더블 레이어 디자인의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총 0.83카트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2150-2320 **다음 피안주 알리 로즈 드 방 네크리스** 옐로 골드 2줄, 화이트 골드 1줄, 총 3줄로 이뤄진 네크리스로 아이코닉한 모티브인 로즈 드 방 펜던트가 반복되며 화려한 연출을 돕는다. 다이아몬드 총 2.7카트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사벨 화인 주얼리 부평 드 캐피탈 네크리스** 브랜드의 상징적인 플라워, 카멜리아 모티브의 펜던트를 불규칙적으로 나열해 하나씩 길게 혹은 여러 번 두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및 레아웃이 가능한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와 14K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97카트로 완성했다. 3천7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부부셀로 쿠차넬리 네크리스** 라미에 산 카멜리아 모티브 코튼이 상징의 동과 부스기의 로콜로 상징된 위장미 칭, 배너타의 도제 공인 기동곡 대기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종 로고, 오페라 플라워 모티브의 펜던트를 여러 개 레아웃한 네크리스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와 마더오브펠로 완성했다. 3천만원대. 문의 02-3440-5613 **포폴리토 누도 네크리스** 긴 길이의 불규칙하게 매달린 원석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7개의 스퀘어 블루 컬러 토타즈 총 55카트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에터 생양민**

# Get Splendor

브랜드의 아이코닉 모티브 펜던트로 가득한 롱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lowly But Surely!

타이베이 아트 주간 2024

#봄날의현대미술 행사에 글로벌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타이베이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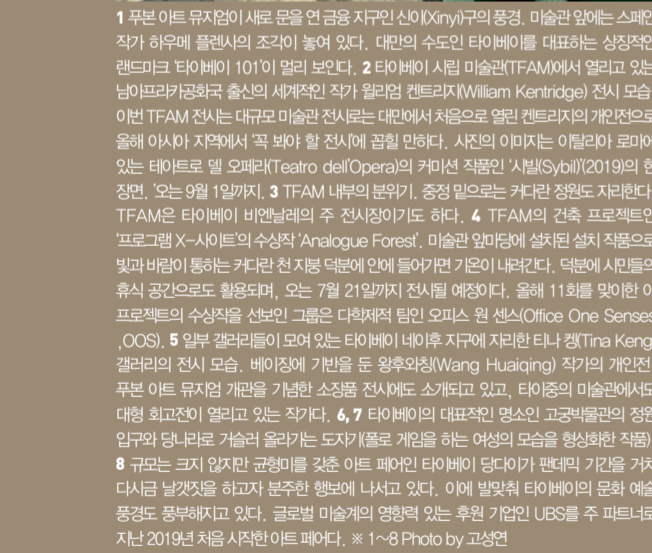
● 대만에 다녀온 이들을 만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도 '사람들이 친절하다'가 아닐까 싶다. 아니면 '맛난 음식이 많다'든가. 런던 유학 시절,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타이베이 출신의 애교 많고 상냥한 친구를 둔 덕분에 필자는 그녀의 모국에 가보기도 전에 이미 친절함 대만인과 대체로운 미식의 세계를 접해보듯 느낌을 겪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대만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느낌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된 듯 싶었다. 유난히 오래 진행되었던 한 문화 예술계 행사에서 혹여 지루할까 싶어 사진이 옆에 응크려 앉아 사회자와 출연자들이 구사하는 한자어를 일일이 영어로 통역해 주려 애쓰던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와 더불어 그날 밤 'cherry duck'으로 불리는 일란(宜蘭) 지방대만 북동부의 오리고기를 얹은 스시를 정밀로 맛나게 먹은 기억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크게 저장되어 있다.

● ● 태평양 사쪽 끝,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섬 나라 대만. 16세기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풍광에 매료되어 부른 것을 계기로 '이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Formosa)'라는 별칭이 붙이 나르는데, 그 뒤로도 찾을 때마다 대체로 가슴까지 깃춘 풍부한 미식과 친절이 마치 다들 트림처럼 되어 있는 양 변함이 없다. 물론 폭넓고 심오한 미식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 정도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아무래도 필자에게 더 흥미로웠던 풍경은 문화 예술이었을 것이다. 수도 타이베이의 미술관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다. 언뜻 보이는 화려함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매력력이 저마다 드러난다. 갤러리에는 대체로 자연스럽고 소박한 정서가 흐르는 가운데 단단한 내실이 자리하고 있는 게 백이다. 그 자체는 책 순례자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독서를 사랑하는 자적인 사람들이 넘치고, 녹지 공간 비율이 높은 녹색 도시를 가꾸어 나가며, 전통을 아끼고 보존하는 데 열심이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자긍심이 걸려 있는 듯하다.

● ● ● 사실 대만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도플갱어'라는 단



어가 등장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다. 19세기 말부터 민족을 고갈시켜 했던 전쟁과 식민지화(일본의 지배),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의 시련 등 주요 궤적을 볼 때 그렇다. 그런데 문화적인 개방성이나 '다름'에 대한 포용성은 대만이 확실히 눈에 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2017년)가 바로 대만 아니던가. 2020년 초 타이베이에서 만난 예술가 오스카 무리요(Oscar Murillo)는 아시아 도시들을 여럿 다녔지만 "이 도시는 열려 있음이 느껴지고, 편하게 편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사투리는 않는다. 2020년 초 아트 페어인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Art & Ideas)를 찾았을 때 이곳 갤러리들은 천천히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영국인 문화 사업가가 설립한 당다이 페어를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다. 팬데믹 탓에 올해 무려 4년 만에 다시 찾은 당다이 페어의 모습은 약간 낯설었지만 반가웠다.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현지인의 의미 있는 관심이나 참여가 늘어난 듯한 분위기가 있고, 무엇보다 도시 자체의 지원이 느껴졌다. 주요 미술관에서 공들인 기획전을 열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맞추는 등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이 엿 보였다. 그렇게 아트 주간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친절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만의 민만다 정서가 스며든 당다이 페어는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global'을 떠올리게 하는 글로벌 아트 페어로 나가는 것 같다.



##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Art & Ideas) 2024

2019년 초에 출발한 현대미술 장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Art & Idea, TPDD)는 초반부터 내실 있기로 알려진 아트 페어다. 세 자리 수의 갤러리가 참가하는 아트 바젤 홍콩과 달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명단에 들어 있는 갤러리들의 명성이나 지역국가별 '균형'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고, 실제로 성과도 준수했다고 알려졌다. 2020년 초의 당다이 아트 페어는 실제로 관람객 입장에서는 발품을 파는 수고에 비해 양질의 콘텐츠를 밀도 있게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는 면적 자체나 인구, 그리고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때 서울보다 현저히 도시 신축에 나서기 편한 타이베이 아트 신도시 비슷한 매력이다. 가나인 팬데믹 기운을 뒤로하고 4년 만에 다시 찾은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는 건재했고, 페어장 풍경은 여전히 이기적했다. 다만 화창한 5월에 열리는 점이 달라졌다(2022년부터). 올해는 폭우가 한차례 몰아치던 뒤라 상대적으로 쾌적한 날씨를 결정한 페어 주기를 누리기도 했다.



1 지난 5월 9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나흘간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에서 펼쳐진 현대미술 아트 페어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Art & Idea, TPDD)에 참가한 갤러리들은 실재와 환경, 평면과 입체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엄선해 소개했다. 사진에 보이는 대형 회화는 빈우혁 작가의 작품이다. 2 타이베이 당다이에 참여한 갤러리 부스. 왼쪽에 우한나 작가의 신작 'Full Bloom, Bleeding'(2024), 오른쪽에는 테일러 화이트의 회화 'Dawn, Wind'(2023)가 보인다. 3 올해 타이베이 당다이는 대만 문화부와 공동 주최한 기획 전시 <천둥이 치기 전에(Before Thunders)>: 대만 아티스트 전시회를 난강 전시 센터에서 선보였다. 시 장막의 지원은 물론 지역 미술 생태계 지원의 참여가 두드러진 페어였다. 4 지난 5월 타이베이 당다이에 참가한 일본의 지방인 갤러리인 스카이 테베스트하우스 부스. 5 타이베이의 40대 '젊은' 시장 장완안(蔣萬安)이 타이베이 당다이 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활짝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제스(蔣介石) 전 대만 총통의 증손자로 1978년생의 국민당 기대주자. ※ 1~5 Photo by 고성현

### #나를 일점으로 펼쳐진 아트 페어 이모저모

● 지난 5월 9일 이후,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Art & Idea, TPDD) VIP 프리뷰가 진행되는 날마다 국제 인파가 몰리고 북적북적대는 풍경이 연출됐다. 개막식에는 페어를 주최한 '디 아트 어셈블리(The Art Assembly)'의 주요 인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디 아트 어셈블리는 아시아 대륙에서 설립된 3개의 주요 국제 미술 페어(당다이)를 비롯해 싱가포르의 아트 SG, 일본의 도쿄 캔디가 결합된 조직이며 이 페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타이베이 당다이의 공동 디렉터는 현지인을 놀라게 할 정도로 유창한 민다린어를 구사하며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로빈 페크함(Robin Peckham)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 시장에서 인맥과 노하우를 쌓은 매그너스 렌프(Magnus Rentfrew)가 맡고 있다. 그런데 좌중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인물은 타이베이의 40대 시장 장완안(蔣萬安)이었다. 장제스(蔣介石) 전 대만 총통의 증손자로 1978년생의 국민당 기대주인 장완안은 '아트 바이브(art vibe)'의 관점에서 타이페이는 훌륭한 도시'라며 '대만 애석하게도 페어 일정이 너무 짧으니 부디 체류 기간을 늘려달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 ● ●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은 하강 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유망 미술 시장의 상향이 좋아졌기에 골목을 탈 때가 되기도 했고 친화적인 경기 체제의 여파이기도 하다. 올해도 5회를 맞이한 타이베이 당다이는 전 세계 19개 지역국가에서 온 78개 갤러리가 한자리에 모여 9일 VIP 프리뷰 데이를 시작으로 나흘간에 걸친 행사를 펼쳤다(공식 일정은 5월 10~12일). 시장이 꺾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갤러리나 지인을 여는 컬렉터 입장에서나 '신중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곤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갤러리들이 이럴 때 '명확한 제안'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실 컬렉터 입장에서선 외려 작품 수급에는 적당하고 여기저기 번가는 이들도 있 대물론 인기 있는 작가는 크게 불황을 타지 않고,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만 말이다). 올해 당다이 페어는 90개 갤러리가 참가한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였지만 방문객 수는 소폭 증가한 3만5천 배25명으로 집계되면서 작년도 '관심도에 있어서는 나름 선형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 ● ● 실제로 첫날 페어장 자체는 상당히 활기가 흘렀다. 당다이 페어의 프로그램 자체가 풍부해진 덕분이기도 하다. 주요 갤러리들이 선보이는 갤러리(Galleries) 섹터를 비롯해 떠오르는 작가들의 개인 부스를 지원하는 에



지(Edge), 대규모 몰입형 작품을 전시하는 노드(Node), '문화로서의 수집'이라는 주제의 강연 시리즈로 돌아온 '이디어 포럼' 등 섹터별로 대체로 프 레젠테이션을 시도했으며,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아티스트들의 단독 부스는 특별 전을 마련하는 에voke(Invoke) 섹터를 새롭게 론칭했다. 또 방문객들이 대 오송 미술관, 타오위안 미술관, 관두 미술관, 원성 예술재단 등 타이베이와 대만 전역의 다양한 미술관, 예술 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하는 카 페 컬처는 새로운 라운지 공간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초로 대만 문화부와 공동 주최한 기획 전시 <천둥이 치기 전에(Before Thunders)>: 대만 아티스트 전시회였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대만의 친화적인 아트 신에 걸맞은 타이베이 미술관 건축이 훨씬 더 활발하게 흘러갈 것으로 장제스는 긍정적 신호처럼 보였다. 메가 갤러리들은 예전 대비 덜 눈에 띄었지만 그래도 데이 비드 조원, 페로랑, 에릭 피아르, 갤러리아 콘텐투아 등 '미 지역 컬렉터' 리들도 참가했고, 한국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갤러리비트, 조 현화랑, 가나아트, G갤러리, 사정아트, 피온드리스, 에이리온, 아트스페이스 3 등). 갤러리비트 관계자는 '배운현의 생동감 있는 구성 회화, 최성정의 빛의 적용과 색채에 주목한 회화는 컬렉터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순회(2024)를 진행 중인 리너스 반 데 벨레와 자네스 스페이스 K 개인전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확대된 유이치 히라야마의 신작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갤러리 관계자는 '타이베이시 정은 단기간 승부를 보려고 오면 안 된다'며 '친절한, 확실하게 정서를 기억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듯 미술을 짓기도 했다. 글 고성현

새롭게 꿈틀거리는 현대미술 풍경 속 2, 3세대 동력

# 대만다운 ‘아트 신(scenes)’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Fubon Art Museum

세상에는 첫눈에 경탄을 금치 못하거나 심지어 실짝기가 죽을 것만 같은 화려함을 지닌 도시가 있고, 메트로폴리스는 대개 그런 위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하면 타이베이에는 건물들이 높지 않고 도시 전체의 재고가 낮아서인지 차분함이 느껴지는 도시다. 대만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규모 자체가 3백만 명도 되지 않으므로 서울과 비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도심의 상업 지구에는 눈오기가 되어주는 고층 건물이 몰려 있는데, 바로 이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이 자리하고 있기도 한 금융 지구 신이(Xinyi)이다. 지난 5월 초 타이베이 당이 페어가 막을 올리는 주간에 맞춰, 이 지구에는 새로운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립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스페인 작가 하우에 플렌시아의 커다란 조각을 야외 광장에 두고 있는 푸본 아트 뮤지엄(Fubon Art Museum)이다. 10,000㎡ 면적의 5층짜리 흰색 건축물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 렌초 피아노(Renzo Piano)가 이끄는 RPBW가 밀어붙여 완성된 화제가 되고 있다.

## 로맹-인상주의 전시와 수려한 소장품전으로 대중 앞에 나서다

금융 기업인 푸본 그룹은 28년에 걸쳐 예술이 싫고, 삶이 예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푸본 아트 재단을 운영해왔다. 그들의 2세대 경영자인 차이밍싱(Richard Tsaï)과 그의 부인이자 푸본 아트 뮤지엄 관장인 매기 웡(Maggie Ueng)은 대만의 내로라하는 컬렉터 부부다. 예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결국 미술관 설립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의 궁금증 속에서 개관전을 선보였는데, 미국 LACMA와의 협업으로 꾸민 기획전(‘True Nature: Rodin and the Age of Impressionism’)과 6인의 작가를 소개한 재단 소장품 전시다. 외국인 로맹의 조각과 모네,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작가들의 조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개관작으로는 신유(Sanyu), 왕후와왕(Wang Huiqing), 폴 차양(Paul Chiang), 자우키(Zao Wou-Ki), 윤자(Yun Gee), 수샤오바이(Su Xiaobai) 등 아시아 거장들의 수작을 선보인 소장품전이 더 눈길을 끈다. ‘이제 남쪽에는 차메이 뮤지엄(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술관을 지은 대표적인 예인 타이난의 미술관, 북쪽에는 푸본이 있다’는 표현을 스스로 하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된다.

1 RPBW(Renzo Piano Building Workshop)가 KRIS YAO | ARTECH과 협업을 설계한 푸본 아트 뮤지엄의 외관. ‘스타카토’라 불리는 스타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에 작품을 들여놓는 해외 우수 도시들의 경향을 보고는 건축이 미술관의 이면이 되어버린다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 규모의 미학은 상상하지 않거나 더 힘들고, 어떤 도시에는 여러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Photo by 고성연 2 미술관 내부를 장식한 신구 스스쿠(Susumu Shingu)의 2024년 작품 ‘더 갤럭시(The Galaxy)’. Photo by 고성연 3 미국 LACMA와의 협업으로 꾸민 기획전(‘True Nature: Rodin and the Age of Impressionism’) 설치 모습. 오는 9월 23일까지. 이미지 제공: Fubon Art Museum



3



2

공간의 문화화가 사회·문화적 흐름이 되어버린 지금의 시대에 창의적인 기업인 아트 스페이스를 목격하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물론 이도 경향이 되어버린 마당에 그 흐름을 이끄는 주체들은 단지 출가운 일만이 아니라 내공과 자존심이 걸린 승부차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팬데믹 전 타이베이를 찾았을 때 경쾌하게 채워진 공간이 있는데, 커다란 눈사람 모양의 조각이 입구가 있는 야외 공간에 공공 미술처럼 버티고 있는 주트 아트 뮤지엄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트 랜드 디벨로프먼트(Jut Land Development)의 창립 30주년, 그리고 예술과 건축을 위한 재단인 JFAA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화사해드 쿼터 건물 옆에 2016년 문을 연 작은 미술관이다. 건축가 이오기준(Jun Aoki), 미래의 미술관이란 제목의 개관전을 한 이오기준 미래(future), 도시 건축(urban architecture), 그리고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의 세 축으로 전시를 꾸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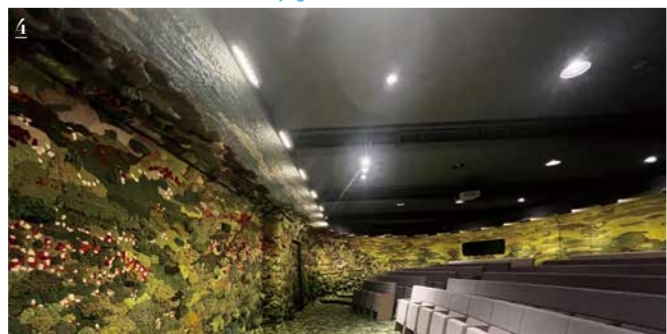
## 예술을 일터와 일상적인 삶의 결여!

재단을 이끄는 CEO이자 주트 그룹의 부회장이자 애런 리(Aaron Lee)는 그들의 2세대 경영자지만 현대미술과 건축에 대한 투자는 1세대인 문화 예술 애호가다.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나 타이베이 당이 페어 덕분에 바로 옆 건물인 회사 내부의 컬렉션과 영감 만발한 사물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로부터 레파르 아나돌(Refik Anadol)의 설치 작품이 빛을 발하는 이 일터는 총리다 작은 공간에서 미술관을 하거나 미술을 짓게 하는 임종없는 구성으로 기업 문화를 공급하게 할 정도로 호응을 이룬 바 있다. 예컨대 MVRDV가 인테리어를 맡은 240㎡ 규모의 강연 홀은 천장이며 바닥이 초록색 카펫으로 뒤덮여 있는데, 대만의 녹음 젊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알렉산드라 케야요글로우(Alexandra Kehayoglou)의 커미션 작품이다. 창의적인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 회사 내에 다국적 작가들과 협업해 완성한 작품(대부분 커미션 작품과 센스 있는 오브제가 어찌기 눈에 띄는 디자인 회사, 도서관, 요가실, 휴게실 등이 자리한다. 현재 타이베이 외곽에 또 다른 미술관을 준비 중이라는 애런 리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간의 재편을 돕고 작은 미술관을 20개 정도 짓는 게 목표라며 수장가들의 소장품에 보관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Jut Art Museum

1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주트 아트 뮤지엄의 정문 앞. ©Jut Art Museum 2 마르코 카사그란데(Marco Casagrande), ‘The Great Assistant’. 미술관 앞에 놓인 조각은 역시 커미션 작품인데, 이 회사가 미술관과 주상 복합 건물, 회사 본사 건물 등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몽수상’의 역을 맡는 걸 고려해 반영한 작품이기도 하고. 3 현재 주트 아트 뮤지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진전(‘Civilization The Way We Live Now’)의 위성 전사가 열리는 공간 언캐니(Uncanny) 설치 풍경. 주트 랜드 디벨로프먼트가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 NOKE에 있다. 이 사진전은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MMCA)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순회전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Jut Art Museum 4 MVRDV가 인테리어를 맡은 240㎡ 규모의 강연 홀은 천장이며 바닥이 초록색 카펫으로 뒤덮여 있는데, 대만의 녹음 젊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알렉산드라 케야요글로우(Alexandra Kehayoglou)의 작품. 외부 강연이나 행사도 열리는 장소다.



4



1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주트 아트 뮤지엄의 정문 앞. ©Jut Art Museum 2 마르코 카사그란데(Marco Casagrande), ‘The Great Assistant’. 미술관 앞에 놓인 조각은 역시 커미션 작품인데, 이 회사가 미술관과 주상 복합 건물, 회사 본사 건물 등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몽수상’의 역을 맡는 걸 고려해 반영한 작품이기도 하고. 3 현재 주트 아트 뮤지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진전(‘Civilization The Way We Live Now’)의 위성 전사가 열리는 공간 언캐니(Uncanny) 설치 풍경. 주트 랜드 디벨로프먼트가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 NOKE에 있다. 이 사진전은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MMCA)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순회전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Jut Art Museum 4 MVRDV가 인테리어를 맡은 240㎡ 규모의 강연 홀은 천장이며 바닥이 초록색 카펫으로 뒤덮여 있는데, 대만의 녹음 젊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알렉산드라 케야요글로우(Alexandra Kehayoglou)의 작품. 외부 강연이나 행사도 열리는 장소다.



2



## #홍 파운데이션(Hong Foundation), 묵묵하게 기관 역할을 하다

아직도 대만이 계몽령에 갇혀 있을 시절인 1971년 설립된 재단인 홍 파운데이션. 무려 반세기 넘도록 교육과 문화 예술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이 재단은 파오스 타이완이 된 거점 화산인 귀지파이(Guozhifai, 國語復興) 장인이 후원한다. 현재 그룹 창립자의 3대손 며느리인 건축가 그레이스 쉑(Grace Cheung)이 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지원 사업의 절반 이상을 예술을 주로 다루는 공공 기관의 것보다 과거의 비슷하다. 2014년부터는 직접 후원을 하거나 커미션 프로젝트를 통한 대만 작가 양성 등 동시대 미술계에 보탬이 될 만한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창의력 넘치는 작가에게 1백만 대만달러를 상금으로 제공하는 통충 프라이즈(Tung Chung Prize)의 제정이다. 그래서 전시 자체도 권위 있는 비상업 공간으로 주로 이뤄진다(재단의 독자적인 전시 공간도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홍 파운데이션이 진행하는 전시 중 하나인 ‘Ghost in the Sea’도 광둥비엔날레에 국가 파빌리온으로 참여했던 대만 동시대현대미술협회(C-LAB)의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타이베이 당이 페어의 파트너로도 참여했는데, 상업적인 야외 페어에서 자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나뭇의 벽을 세운 방을 만들어 전시했다. 창립자의 작가 청셴위(Cheng Hsien-Yu)의 ‘Credit Makes You Free’라는 작품인데, 신용카드를 거기에 넣으면 예술가들을 위한 아트리스트 피(tee)가 높아지는 재단 발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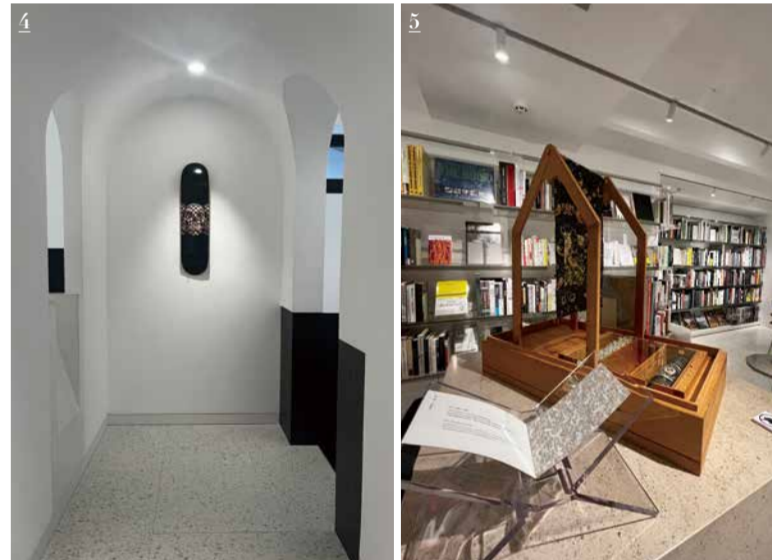
## #윈싱 아트 플레이스(Winsing Art Place), 문화 예술 서적의 보고이자 전시 공간

4년 전 타이베이 당이 페어를 찾았을 때 문화 예술 공간 탐방에 나섰다(찾은 작은 보석 같은 공간이었다. 요즘 타나 캉, 타이오아트 같은 대만의 주요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는 타이후 지구에 자리한 윈싱아트 플레이스(Winsing Art Place). 직전 해인 2019년 여름 문을 연 이 비영리 문화 예술 플랫폼은 깔끔하고 우아한 전시장과 함께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서 있는 2층짜리 아담한 공간으로 단번에 눈을 사로잡았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윈싱 디벨로프먼트 컴퍼니 회장의 딸로

현대미술 애호가인 제니 예(Jenny Yeh)가 운영하는 곳으로 개관전으로 더그에이(Doug Aiken), 두 번째 전시로 잉헤류 개관전을 열었고, 2020년 당시에는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인 자인 보(Danh Vo) 개인전을 진행 중이었다. 올해 당이 페어 기간에는 멕시코 현대미술 거장 Gabriel Orozco의 조각, 설치, 회화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전이 수교로 열리고 있었다. 제니 예는 현대미술 수집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인 2018년 윈싱아트 재단(Winsing Arts Foundation)을 설립했는데, 미술과 건축, 환경, 등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들과 땅,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목표를 중시해 왔다.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사립 미술관 TFAM 부지의 공원에 숨겨진 보석처럼 자리한, 우리 패블로 지은 이름다운 DM 카페도 이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다.

## #리브 포에버 재단(Live Forever Foundation), 비즈니스와 예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시도

메세나든 인 인문학에서의 브랜딩 루저든 랜더가 되는 아트 스페이스는 도시에 부가가치를 더해주기 마련이다. 대중의 입장에서 공공이나 사립이든 별론제가 되지 않는다. 공간과 콘텐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말이다. 타이베이에 있는 리브 포에버 재단은 지난해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시선만 보기는 속속 깊숙이 자리한 외판 공간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2012년 설립된 이 재단은 타이중 시내에 자리한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을 품고 있는데, 이역시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로 동시대 대만 작가들을 후원하는 곳이다. 숲속에 들어와 있어서는 없지만 나무에 둘러싸인 창신한 재단 건물의 자태는 지속 가능한 생태와 문화 예술을 지지한다는 시선에 걸맞은 듯 보였다. 생태적인 데 초점을 맞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고 대만 지역의 문화와 지리를 깊이 파고드는 전시를 꾸려오며 외부 큐레이터들과도 활발한 협업을 벌인다. 마침 필자가 방문했을 때 작가이자 큐레이터가 이끄는 플랫폼인 비수(Bisui)와 공동으로 기획한 그룹전(‘Space in Between’)이 열리고 있었는데, 현실의 물질적인 측면을 관찰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물질성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5인의 작업 세계가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구성과 미학으로 다가왔다. 안들을 지니면 전시장 주변에 미팅 룸이 있더라도 길게 공공했는데, 재미있게도 회사의 후계자인 재단의 디렉터가 본업을 겸하는 사업장이었다. 간판도 따로 없는 고요한 분위기의 공간이라 ‘자! 전 어떤 작품이 걸려 있나?’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전시를 보지 않아도 부동산 마팅이라도 하교인이 멋진 공간의 커피와 디저트 맛도 거의 예술이었다. 글 고성연



3



4

5



1 타이베이 에 있는 C-LAB 전시장에서 열린 대만 작가 무스퀴비 차잉(Musquiqui Chinying, b. 1965)의 전시(‘Ghost in the Sea’) 설치 모습. 지난 5월 12일 막을 내렸다. 홍 파운데이션(Hong Foundation)이 운영하는 통충 프라이즈(Tung Chung Prize)의 7회 수상 작가로 안의 조각과 생태학적 환경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시공도,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한다. Photo by 고성연 2 홍 파운데이션은 올해 타이베이 당이 페어에도 전시를 선보였다. 역시 대만 작가인 청셴위(Cheng Hsien-Yu)는 영평의 관행(관행)이 신용카드를 거기에 넣으면 개인 정보 추출되지 않는다(예술가들의 아트리스트 피(tee)가 높아지는 개념의 작품인 ‘Credit Makes You Free’를 선보였다. 그레이스 쉑(Grace Cheung, 가운데로부터 아홉 출품작에 대한 최종 커미션 수수령 받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가)은, Courtesy of Hong Foundation 3 타나 캉, 타이오아트 같은 대만의 주요 갤러리들이 들어서 타이후 지구의 윈싱아트 플레이스(Winsing Art Place)는 2019년 여름 문을 연 비영리 문화 예술 플랫폼이다. 4 올해 당이 페어 기간에는 멕시코 현대미술 거장인 Gabriel Orozco의 조각, 설치, 회화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전이 윈싱아트 플레이스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13일까지. 5 윈싱아트 플레이스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사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4년 만에 다시 가보니 더 보석 같은 자료가 모여 있어 마치 작은 도시만 같은 인상을 풍겼다. 6 대만의 중부의 도시 타이중에 자리한 리브 포에버 재단(Live Forever Foundation)의 외관. 7 리브 포에버 재단은 지속 가능한 생태와 문화 예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시를 열면서 주로 대만의 현대미술가들을 후원한다. 이 재단 건물의 앞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쓰고 있으며, 현재 재단을 이끄는 수장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후계자다. 8 필자가 방문한 시점인 5월 초, 리브 포에버 재단에는 비수(Bisui)라는 아트 플랫폼이 재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그룹전(‘Space in Between’)이 열리고 있었다. \* 3~8 Photo by 고성연

6

7

8





# Magical Time

까르띠에는 2024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워치 컬렉션을 통해 메종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형태의 워치메이커라 자부하는 브랜드답게 이번에도 역시 놀라운 형태와 개성 있는 디자인의 실루엣으로 무장한 워치 셀렉션으로 또 한번 독보적 영역을 구축한다.

까르띠에 메종은 이번 '워치스 & 원더스 2024'에서 '마법'이라는 공상적인 주제로 노벨티 컬렉션을 선보이며 까르띠에만의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노하우를 여실히 보여줬다. 팔렉소 내 까르띠에 부스 역시 변함없이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메종들 사이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했다.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을 차지한 밤하늘과 보름달은 마법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신비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주요 노벨티 제품을 전시한 각각의 방에서는 제품들과 어우러지면서도 매지컬한 무드를 이어가는 다양한 오브제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쌓아 올린 돌과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 형상화한 악어와 각종 동식물이 마치 살아 있는 듯,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듯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선사했다. 제품에서 역시 이러한 마법적인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비행사들을 위한 워치로 까르띠에의 DNA를 가득 담고 있는 산토스 뒤편 컬렉션의 리와인드 워치가 그렇다. 시간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뒤집어버린 워치로 까르띠에만이 지닌 대담함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산토스 뒤편의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적 DNA는 그대로 유지해 그 위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까르띠에의 가장 고귀한 모델인 '톡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워치를 선보였으며, 까르띠에의 동물 세계, 워치와 주얼리의 결합에 대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애니멀 주얼리 워치 컬렉션 등에서 다양한 산제품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최고의 워치메이킹 메종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했다.

## 경이로운 우아함의 상징, 톡뚜

메종의 무수한 아이콘 워치를 디자인한 루이 까르띠에(Louis Cartier, 1875~1942)의 또 하나의 명작인 톡뚜(Tortue) 컬렉션. 1912년 루이 까르띠에는 어느 날 우연히 거북이 등껍질의 실루엣을 보고 영감을 얻어 프랑스로 거북이를 뜻하는 톡뚜를 선보였다. 1906년 선보인 토노보다 동그라면서도 한층 볼륨감 있는 형태로 라운드 혹은 스퀘어 같은 획일적인 세이프에서 벗어나 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를 시도하는 까르띠에만의 유니크한 워치메이킹 역사를 상징하는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워치 마니아들의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며 까르띠에의 또 하나의 아이콘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까르띠에는 또 한번 톡뚜로 새로운 워치메이킹 역사를 써 내려간



다. 소수의 컬렉터를 위한 가장 진귀한 라인인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으로 선보인 것. 까르띠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고객 및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전개한 컬렉션인 프리베 까르띠에 파리를 잇는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과거의 전설적인 헤리티지 모델을 재발굴해 선보이고 있다. 그 여덟 번째 주인공으로 선택된 컬렉션이 바로 '톡뚜'인 것. 새로운 시와 분만 표시하는 타임 온리 버전의 톡뚜는 오리지널 디자인에 충실한 동시에 섬세한 재작업으로 다시 탄생했다. 스트랩을 따라 혼이 길어지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한층 풍성해지고 가벼워졌다. 더불어 초창기 모델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사과 모양 핸즈와 레일 트랙을 매치했다.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 주위에 배치한 레일 트랙과 핸즈 덕분에 다이얼은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이야말로 진정한 클래식의 재해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까르띠에 프리베 톡뚜는 새로운 에디션으로 총 다섯 가지 베리에이션의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플래티넘 혹은 옐로 골드 소재의 가장 클래식한 타임 온리 버전의 톡뚜 워치 2점과 추가로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 고유 번호를 부여한 50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된다. 이 세 가지 모델은 전부 새로운 톡뚜에 맞춰 사이즈를 조정해 매뉴팩처 메카니컬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30 MC로 작동한다. 까르띠에가 사용한 가장 얇은 무브먼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은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다. 플래티넘 또는 옐로 골드 케이스 버전으로 출시하는 이 존귀한 버전의 톡뚜로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컴플리케이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선한 기회를 제공한다.

## 톡뚜 워치

시와 분만 표시하는 가장 심플하고 클래식한 타임 온리 형태의 톡뚜 워치는 1912년 처음 탄생한 오리지널 모델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싱크로를 보여주며 톡뚜만의 기품 어린 모습을 완성한다. 레일 로드 미닛 트랙부터 로마숫자 인덱스, 사과 모양 핸즈, 사파이어 혹은 루비 카보숑 같은 까르띠에 워치 컬렉션다운 우아함과 절묘한 균형미를 한껏 뽐낸다. 톡뚜 타임 온리는 플래티넘과 옐로 골드, 두 가지 소재의 케이스로 선보이는데 케이스는 32.9 X 41.4mm 사이즈로 제공된다. 앞서 말한 언급한 바와 같이 2.15mm 매뉴팩처 칼리버 430 MC를 장착해 7.2mm의 얇은 두께로 제공한다. 플래티넘 버전은 실버 마감 오픈린 다이얼을 매치하고 사과 모양의 로둠 도금 스틸 핸즈와 루비 카보숑 1개를 세팅한 각면 크라운을 매치해 세련된 감성을 이어가며, 버진 레드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옐로 골드 케이스에는 사파이어 카보숑 1개를 세팅한 각면 크라운에 그레인 처리한 골드 피니싱 다이얼, 골드 피니싱 스틸 핸즈로 빈티지한 감성을 더했고, 세미메트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채웠다. 전부 각 케이스 소재를 사용한 아드리용 버클을 매치해 통일감을 부여했으며, 각 2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여기에 처음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의 톡뚜 50피스를 추가로 선보인다. 케이스 사이즈와 무브먼트 등 거의 모든 것이 플래티넘 버전과 동일하나 다이아몬드 세팅과 플래티넘 소재의 각면 크라운에 차이를 두었다. 워치뿐 아니라 훌륭한 주얼리 메종이기도 한 까르띠에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는 1928년 처음 소개된 컴플리케이션으로 1998년 '컬렉션 프리베 까르띠에 파리(Collection Privée Cartier Paris, CACP)'의 하나로 부활했다. 그리고 훗날 세계 애호가들에게 컬렉팅하기에 가치 높은 워치 중 하나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인기를 누렸다. 2024년 선보일 두 가지 버전의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역시 각 2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해 톡뚜를 사랑하는 워치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1 마법을 주제로 꾸민 팔렉소 내 까르띠에 부스. 2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톡뚜 워치. 3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에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한 자태를 완성한 톡뚜 워치. 4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에 사파이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5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옐로 골드 케이스에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4.8 X 43.7mm 사이의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와 옐로 골드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플래티넘은 실버 마감 오픈린 다이얼에 까르띠에가 사랑하는 레드 컬러 루비 카보숑 1개를 세팅한 각면 크라운으로 톡뚜의 클래식하고 우아한 감성을 그대로 담았다. 옐로 골드 케이스 버전은 사파이어 카보숑 1개를 세팅한 각면 크라운을 매치했으며, 그레인 처리한 골드 피니싱 다이얼로 세련된 무드를 살렸다. 이번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의 배치와 디자인의 특징은 다이얼의 가독성을 높이고 크로노그래프를 더욱 정확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 트랙을 로마숫자 바깥쪽에 배치한 것. 덕분에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는 그 어떤 디테일도 존재하지 않는 심플한 다이얼 공간 가운데 2개의 스네일 마감한 카운터를 수평적으로 두어 안정감 있는 균형미가 돋보인다.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와 9시 방향의 초 카운터, 스몰 세컨드 테두리에도 역시 레일 로드 형태의 트랙을 더해 오리지널 톡뚜의 고전적인 디테일을 계승한다. 서양 사과 모양에서 착안한 특유의 오픈 팁 핸즈는 열 처리한 블루 스틸을 사용해 전통적인 디자인을 재현했다. 이 새로운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위해 까르띠에는 4.3mm 두께로 메종에서 가장 얇은 크로노그래프인 인하우스 수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1928 MC를 개발했다. 칼리버 명인 '1928'은 최초 톡뚜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등장한 연도를 기념하는 의미다. 시계 뒷면에서는 이 복잡한 워치 메이킹의 결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 스톱, 리셋을 하나의 푸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갈럼 휠을 비롯해 세컨드 휠과 래터럴 클러치 등 모든 부품들이 마치 춤추듯 고도로 정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매혹적인 광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넓은 케이스 백을 제공한다. 브리지 형태를 강조하는 코트 드 주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의 특별한 마감, 곡선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뛰어난 노하우와 탁월한 장인 정신의 조합이 이 칼리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레버, 스프링, 브리지는 베벨 처리했고 메달은 브러싱 처리를 마쳤으며, 휠과 베렐은 테두리 작업을 거쳤다. 단 하나의 동작으로 움직이는 우아한 컴플리케이션과 그 세심한 작업이 돋보이는 이 특별한 워치는 디자인을 위해 기술이 존재한다는 까르띠에 메종의 철학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 CARTIER © VALENTIN ARAO

© CARTIER © MAUD REMY LONVIS



**창의성과 혁신성의 만남, 산토스 & 산토스 뒤몽 컬렉션**

산토스 드 까르띠에와 산토스-뒤몽 워치는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이자 비행사 알베르트 산토스-뒤몽을 위해 제작한 워치로 혁신과 선구자적 정신을 까르띠에 메종에 불어넣은 워치 컬렉션이다. 까르띠에에는 이번 컬렉션에서 두 가지 대표 신제품을 출시하며 하늘을 정복하고, 시간의 개념을 전복시키며, 중력을 거스르는 비행사 알베르트 산토스-뒤몽의 대담한 유산을 다시 한번 기념한다. 그 첫 번째 워치는 두 가지 다른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담한 매력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듀얼 타임 워치로 비행사가 필요한 기능을 실제로 비행사의 DNA를 담은 산토스에 반영했다. 나머지 하나는 루이 까르띠에와 산토스-뒤몽의 창의성, 혁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듯 시간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은 우아한 시계 산토스 뒤몽 리와인드 워치다. 이 두 워치를 중점적으로 새로운 컬러와 사이즈 배리어이션으로 선보이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의 새로운 세 가지 모델과 유니크하고 색다른 컬러 조합으로 선보이는 세 가지 산토스 뒤몽 워치까지, 총 여덟 가지 모델의 신제품으로 과거 두 친구의 영광을 기념한다.

**산토스 드 까르띠에 듀얼 타임**

1904년 최초의 현대적인 손목시계의 DNA를 계승하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인에 올해 처음으로 듀얼 타임 신제품이 추가됐다. 이전 산토스 드 까르띠에 GMT 모델이 출시된 적은 있지만 듀얼 타임 워치는 처음이다. 이로써 파일럿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워치에 진정한 비행사에게 필요한 기능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산토스 드 까르띠에 듀얼 타임 모델에는 기존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의 클래식한 디자인 코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두 가지 시간대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큰 다이얼에서 하나의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6시 방향 다이얼의 12시간 단위를 표시하는 눈금과 핸드를 통해 다른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위에 낮·밤 인디케이터를 표시하는 작은 원형 창까지 매치해 디테일함의 끝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 광선 모터브의 새틴 브러시드 선버스트 마감한 그레이 계열 앵트러사이트 컬러 다이얼과 폴리시드 마감한 로듐 도금 처리한 양각 인텍스 및 핸즈는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이트 컬러 루미네스트 처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케이스 지름 40.2 X 47.5mm로 기존보다 가로 폭을 살짝 넓혀 가독성을 높였으며 두께는 10.1mm로 기존의 데이트 버전보다 두껍지만 기능에 비해 슬림한 편으로 착용감 역시 훌륭하다. 무브먼트는 기존의 스리 핸즈 워크호스인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1847 MC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칼리버가 사용되었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제공되지만 퀵스위치 시스템을 통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세 가지 새로운 컬러 배리어이션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도 출시한다. 먼저 스틸 케이스에 옐로 골드 베젤을 접목한 투톤 버전은 기존의 라지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의 39.8 X 47.5mm이며 두께는 9.4mm로 제공된다. 그레이 다이얼과 매치되는 독특한 그레이 컬러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선버스트 마감한 브라운 그라데이션 다이얼로 이뤄진 모델도 라지 와 미디엄 사이즈로 출시한다. 라지는 투톤 버전과 사이즈, 두께가 같으며 미디엄은 35.1 X 41.9mm에 두께 8.8mm 사이즈로 제공된다. 올 스틸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스위스 라쇼드퐁 매뉴팩처에서 자체 개발 제작한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1847 MC로 구동한다.

이외에도 세 가지 새로운 컬러 배리어이션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도 출시한다. 먼저 스틸 케이스에 옐로 골드 베젤을 접목한 투톤 버전은 기존의 라지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의 39.8 X 47.5mm이며 두께는 9.4mm로 제공된다. 그레이 다이얼과 매치되는 독특한 그레이 컬러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선버스트 마감한 브라운 그라데이션 다이얼로 이뤄진 모델도 라지 와 미디엄 사이즈로 출시한다. 라지는 투톤 버전과 사이즈, 두께가 같으며 미디엄은 35.1 X 41.9mm에 두께 8.8mm 사이즈로 제공된다. 올 스틸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스위스 라쇼드퐁 매뉴팩처에서 자체 개발 제작한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1847 MC로 구동한다.

**산토스 뒤몽 리와인드**

불가능이란 없었던 비행사 알베르트 산토스-뒤몽의 매혹적이고 이례적인 발자취와 까

르띠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워치메이킹 정신을 따라 탄생한 산토스 뒤몽 리와인드. 자칫 평범하게 비칠 수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선보인 디테일을 알아챌다면 까르띠에가 추구하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리와인드(rewind)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되감다'라는 의미로 전통적인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와인딩해야 배럴에 동력이 제공된다. 더불어 다이얼 역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다. 좌우를 뒤집은 듯 기존의 반대 방향으로 시간을 배열한 것. 컬러는

까르띠에 메종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코닉한 조합으로 완성했다. 31.5 X 43.5mm에 두께 7.3mm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에 인버티드 로마숫자 장식의 커닐리언 다이얼을 매치하고 핸즈는 역시 아이코닉한 사파오 모양의 로듐 도금 스틸로 완성했다. 크라운에는 루비 카보송 1개를 세팅해 다이얼 컬러와 톤온톤으로 완성했으며 우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긴다. 플래티넘 아르디옹 버클을 장착한 세미메트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이외에 산토스 뒤몽 컬렉션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독특하고 색다른 컬러 조합과 디자인으로 이뤄진 익스클루시브 워치 3종을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까르띠에 워치의 시그니처인 로마숫자 조합 대신 아라비아숫자를 적용한 점이 흥미롭다. 옐로 골드, 핑크 골드, 세 가지 소재로 선보이며 각 올리브 그린, 토프 그레이, 피콕 블루, 세 가지 컬러를 적용해 색다른 변주를 주었다. 재작년에도 비슷한 레커 테커레이션의 스페셜 에디션 출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눈에 확 띄는 선명하고 과감한 컬러 선택은 처음이다. 까르띠에 워치 컬렉터를 위한 선물 같은 워치가 아닐지. 케이스 사이즈는 31.5 X 43.5mm에 두께는 7.3mm로 제공되며 세 버전 모두 올트라-신 사양의 매뉴팩처 수동 칼리버 430 MC를 탑재해서인지 매우 가볍고 웨어러블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각각에 어울리는 세미메트 그린, 그레이, 다크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을 매치해 경쾌한 느낌을 부여한다. 플래티넘 버전만 고유 번호가 부여된 2백 피스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며 나머지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 버전은 정규 모델로 출시한다.

1 디자인의 DNA를 계승해 우아하게 완성한 산토스 드 까르띠에 듀얼 타임, 2 산토스 마린 브라운 그라데이션 다이얼로 이뤄진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지 사이즈, 3 산토스 드 까르띠에 미디엄 사이즈, 4 스틸 케이스에 옐로 골드 베젤을 접목한 투톤 버전의 산토스 워치, 5 산토스 뒤몽 컬렉션 익스클루시브 워치 3종, 6 산토스 뒤몽 리와인드



© CARTIER © JEAN-MARIE BINET

**매혹적인 야생의 세계로의 초대, 주얼리 워치**

워치메이킹의 대가일 뿐 아니라 주얼리 메종으로서도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까르띠에에서는 늘 새로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을 선보이며 주얼리 워치에 대한 애정과 품격을 유지해나간다. 다만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는 다른 전통적인 메종들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인다. 1914년 처음 팬더 털로 워치 케이스를 장식한 이래 카리스마와 야생미 넘치는 까르띠에 동물의 세계의 상징적인 동물들이 워치메이킹 레퍼토리에 존재감을 발산해왔기에 타 메종의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과는 다른 독보적인 와일드함을 선사한다. 이번에도 역시 사파리에서나 볼 수 있는 혹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상 속 야생 동물들까지 섭렵해 창의적이고 마법 같은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했다.

**애니멀 주얼리 워치**

올해 까르띠에 동물원에서는 얼룩말과 악어가 상상 속 만남을 통해 매혹적인 환상의 나라를 펼친다. 풀 파베 세팅한 이 크리에이션에 영감을 준 동물은 얼룩말과 악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어떤 동물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기도 하다. 그저 어떤 상상 속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악어일 수도, 얼룩말일 수도 있는 것. 하나하나 레커를 발라 줄기를 표현한 오벌형 케이스는 마치 야생동물이 공격할 듯한 모양새로 마름모형 다이얼 주위를 감싼다. 그 위에 각 컬러 스톤과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매혹적으로 표현했다. 총 세 가지 모델로 출시하며 첫 번째 모델은 핑크 골드에 루비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랙 레커로 섬세하게 표현한 케이스와 다이얼 버전이다. 크라운에는 루비 1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두 번째 워치에는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에 차보라이트 가닛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크라운에는 차보라이트 가닛 1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마지막 세 번째 워치는 옐로 골드 소재 케이스에 블랙 스피넬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마치 표범 같은 카리스마적 분위기를 선사한다. 블랙 스피넬로 장식한 크라운을 매치했으며 유일하게 파베 세팅 다이얼이 아닌 블랙 컬러가 돋보이는 원석인 옉닉스 다이얼로 마무리했다. 실제 야생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표현된 애니멀 주얼리 워치 컬렉션은 모든 이에게 단지 시계 그 이상으로서의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크로커다일 주얼리 워치**

완전한 조각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 악어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듯 묘한 매력을 선사하는 디자인을 구현한 까르띠에. 이전 애니멀 워치는 다소 추상적인 느낌으로 동물을 표현했다면 사실적인 묘사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버전의 완전히 상반되는 워치 역시 동시에 출시하며 메종이 가진 다양한 장기를 자랑한다. 악어의 매끄러운 곡선과 뾰족한 비늘, 심지어 밝은 에메랄드 눈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져 시계가 작동



© CARTIER © MAUD REMY LONVIS



1 까르띠에 메종의 야생적 무드를 실현시켜 줄 애니멀 주얼리 워치, 2 사실적인 악어의 묘사로 생동감을 전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크로커다일 주얼리 워치, 사파이어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버전, 3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까지 전체 세팅하고 팬더 헤드에는 사파이어로, 눈은 에메랄드로 완성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팬더 워치, 4 호랑이와 악어를 모티브로 만든 애니멀 워치.

하는 순간 악어가 깨어날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케이스와 다이얼, 브레이슬릿 모두에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에 투르말린,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하는 버전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네이비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에 케이스와 다이얼, 버클에 자개, 사파이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카보송 컷 에메랄드로 악어의 눈을 완성한 버전과 마지막으로 무지개빛 파플 송아지 가죽 퍼스트 스트랩에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카보송 컷 에메랄드 눈으로 완성한 버전까지, 모두 퀵스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여기에 까르띠에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팬더 워치 1개를 추가했다.

더불어 기존 까르띠에 팬더 워치에서 좀 더 발전시킨 동물 워치 3종도 선보인다.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팬더 워치와 악어를 모티브로 한 로듐 도금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에메랄드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실버 마감 태양 광선 모터브 브러시드 다이얼을 매치한 크로커다일 주얼리 워치, 그리고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옐로 골드 소재에 블랙 스피넬과 스페르타이트 가닛, 옐로 및 옐로우 사파이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이거 주얼리 워치까지, 모두 퀵스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1877-4326 **애프터 샵**



© CARTIER © MAUD REMY LONVIS



한 해 시계 트렌드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상 최대 시계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가 올해 세 번째로 막을 열었다. 비제발드가 막을 내린 후 유일하게 워치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전 세계 바이어들의 활발한 거래의 장 역할을 하게 해가 갈수록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총 54개 브랜드의 참여로 또 한 번 브랜드 참여 숫자로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무려 8개의 신규 브랜드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선보였다. 또 2023년 대비 무려 14%나 증가한 4만9천 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페블릭 데이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가이드 투어, 워크숍 등은 오픈 전날 솔드아웃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워치스 & 원더스는 더 이상 시계 페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로 제네바라는 한 도시의 축제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페블릭 데이에 대중을 초청해 특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했다. 워치스 & 원더스가 이와 같이 제네바의 도시 축제가 되면서 작년에 이어 워치 행사에 대한 영 제네바인의 관심과 시계에 대한 구애가 늘어났다. 1만9천 장의 퍼블릭 티켓 중 25%가 25세 미만에게 판매되었으며, 티켓을 구입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올해 역시 작년에 진행한 인디스타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워치 브랜드 부티크가 모인 제네바 구시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도심 곳곳에서 파도와 행사가 열렸으며, 워치스 & 원더스 부스가 있는 팔렉스포 외 워치 부티크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도시 축제의 화려한 막을 내리는 야외 공연도 펼쳐졌다. 세계적인 벨기에 출신 DJ 로스트 프라퀀시스(Lost Frequencies)가 호수 앞에서 선보인 야외 공연은 제네바를 진정한 시계 축제의 장소로 만들었다. 과거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하게 진행되며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축제는 더 이상 옛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을 위한 도시 축제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워치 트렌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들과 진정 워치를 사랑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워치 마니아, 워치 인디스트리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바이어까지, 올해 출시한 시계들을 더욱 자세히 알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축제가 끝난 후 남은 것은 워치 브랜드들에 대한 냉

철한 평가와 트렌드 방향성에 대한 해석이다.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출시한 워치들은 어떻게, 각 브랜드가 신제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통해 올해 시계 트렌드를 따라가본다.

### 스타들의 팔렉스포 방문과 축제의 현장

스타 마케팅은 패션업계에도 이어 워치업계에도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물론 워치 역시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위블로나 테그호이 어갈이 스포츠와 관련된 워치를 생산하고 스포츠 스타와 칼라베라이산체 안성한 워치를 다수 내놓는 브랜드부터 할리우드 영화를 위한 워치를 선보이는 브랜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올해 눈에 띄었던 것은 워치 마니아 해두 국내 배우 이준호의 방문이었다. 이준호가 방문한 브랜드는 피아제였으며, 이날 피아제 부스 앞은 이준호를 보기 위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국 배우가 제네바 워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 이후 피아제는 이준호를 피아제 공식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한국 문화가 머무는 도시 제네바까지 사랑한 것. 객석시감을 느낀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초호화 셀럽들이 등장했는데, IWC에는 자철 변천이 방문해 그녀의 엘리건트한 룩이 화제가 되었다. 화이트 팬츠 슈트에 호리호른 블루 컬러의 새로운 IWC 포르투저저 크로노그래프를 착용해 포인트를 주었다. 소피드 글로벌 홍보대사 주이롱(Zhu Yilong)이 소피드 부스에 참석해 제네바에서 본인의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포츠 스타들의 방문도 눈길을 끌었다. 테니스 전설이자 롤렉스 홍보대사 코코 가우프는 US 오픈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롤렉스 부스를 직접 방문했으며,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자 위블로 홍보대사 길리안 음바페는 이번에 출시한 44mm 위블로 박형 UEFA 챔피언스리그 GEN3를 착용하고 위블로 부스를 방문했다. 전 세계 유명 세프들을 지원하는 예거 르플트르에서는 미술관 스타 세프 하인슈 사이나를 초청했다. 이외에도 제스 데피 라린의 새 모델 스카이리인 크로노그래프를 착용하고 등장한 싱가포르 배우 데스몬드 탄과 몽블랑 부스를 방문한 중국 배우 장보란까지, 패션 위크를 방불케 하는 최고 셀럽들의 참가로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다.

### 시계업계에도 찾아온 불경기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더 화려하고 풍성한 행사 모습과 대비되는 워치 신제품들이었다. 브랜드 대부분이 원전 새로 온 컬렉션이나 신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원래 있던 컬렉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하거나 소재 혹은 컬러의 변주 정도에 그친 것. 아무래도 최근 소비 동향과 경기를 반영한 듯 보인다. 그 때문에 워치 브랜드마다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나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담긴 제품들은 다음 경기가 나아질 때를 대비해 묻어두고 기존 제품에서 다른 차별점을 기미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신제품 모두의 판매를 높이는 데 집중한 듯하다. 물론 기존 컬렉션들의 히스토리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의 신제품들을 통해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워치업계에 불어닥친 다운사이징 트렌드와 스트랩 교체 시스템 도입을 통해 또 하나의 스트랩을 사바스처럼 제공하는 워치의 출시가 많았다는 점에서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워치 브랜드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기존 컬렉션들이 더 작은 사이즈로 출시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유나성으로 착용 가능해졌으며 더불어 남성 고객뿐 아니라 여성 고객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엿볼 수 있었다. 또 아티스트와 칼라베라이산체 같은 컬렉션이 아닌 스페셜티를 부여함으로써 워치 컬렉터들을 유혹하기 위한 전략을 꾀한 점 역시 재미있는 포인트였다. 하지만 내년에 좀 더 경기가 나아져 획기적이고 다양한 신제품 워치를 보고 싶다는 바람 또한 가져본다. 에디터 **성민인**

1 제네바강변에 설치된 워치스 & 원더스 부스. 2 워치스 & 원더스를 보기 위해 일찍부터 팔렉스포를 찾은 안바. 3 가운데 가래한 피아제 워치스를 설치해 깊은 인상을 남긴 예거 르플트르의 부스. 4 IWC 부스를 방문한 자철 변천이 신제품 워치들을 보며 소문을 듣고 있다. 5 워치스 & 원더스 행사에 열리는 팔렉스포 내 피아제 부스를 찾아 신제품 워치들을 감상하는 배우 이준호.



# Watches & Wonders 2024

지난 4월 9일, 스위스에서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인 워치스 & 원더스 2024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해보다 6개 브랜드가 추가 합류해 총 54개의 브랜드가 참가, 열기를 더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워치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워치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현장. 올해의 워치 트렌드와 키워드부터 각 브랜드의 주요 워치까지 <스타일 조션일보>가 직접 취재해 담았다.

## INSIGHTFUL WORLD

워치스 & 원더스 2024가 진행되는 동안 팔렉스포 밖 부티크에서도 신제품을 선보이는 다양한 워치 행사가 진행되었다. 팔렉스포 부스와는 또 다른 매력의 현장.



**BREITLING** 팔렉스포 외 부스 행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브라이틀링 행사였다. 브라이틀링은 창립 140주년을 맞아해 제네바에서 스위스 탐험가이자 환경 운동가 베르랑 피카르(Bertrand Piccard)가 주도하는 친환경 수소 동력 비행기 프로젝트인 클라이밋 임펄스(Climate Impulse)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브라이틀링 제네바 부티크 앞에 열거를 띄웠다. 이 열거구는 열거구 조종사 베르랑 피카르와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가 1999년 3월 21일 세계 최초 무착륙 열거구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브라이틀링 오버터 3호를 오미주한 디자인으로, 이를 감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기념비적인 워치, 에어로스 페이스 B70 오버터 신제품을 출시하며 역사적 의미를 대했다.

**GUCCI** 2021년 브랜드 탄생 100주년을 맞아해 첫 번째 하이 워치메이킹 사업의 시작을 발표한 이후 3년이 지난 2024년 또 하나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이는 행사를 제네바 외곽에 있는 재략가의 고급 빌라에서 개최했다. 잘 가꾸 드넓은 정원을 지나 지리한 고급 빌라에서 프라이빗하게 진행했으며, 구찌 타임피스 대표적 모델인 구찌 25H 마넨 리피터 제품을 필두로 구찌 25H 스텔라톤 투르비용, 구찌 오토로링, G-터원리스 플레-테리얌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고요한 빌라에서 구찌 25H 까리옹 마넨 리피터의 조화로운 음색을 듣는 순간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경관까지, 하우스 오브 구찌다운 행사였다.

**FRANCK MULLER** 프랑크 물러 빈사 건물 옆 건물에서 진행된 신제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한 규모로 개최되었다. 행사 메뉴를 감각적이고 개러한 갤러리로 변모시킨 것. 이 전시회에서는 2024년 프랑크 물러의 신제품을 대거 전시했다. 덕분에 게스트들은 한눈에 신제품들을 확인하고 직접 관람하며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가장 돋보이는 신제품 중 하나는 프랑크 물러의 아삼작이자 아이코닉 모델인 커벡스(Curvet) CX 그랜드 센트럴 투르비용 스텔라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스텔라톤 디자인에 투르비용을 접목해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또 워치의 불꽃같은 강조해 하나의 우주를 보는 듯 강렬하다. 이외에도 이번에 프랑크 물러가 선보인 다양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여성 워치도 주목할 만하다. 밤에는 라데인피티를 개최해 아름다운 워치와 함께 신제품 출시를 기념했다.



## TREND KEYWORDS BEST 3

### 1 Evolution of The Tourbillon

올해는 유독 투르비용 워치를 다수 선보였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시계의 장인이자 브레게 창립자인 아브라함-루이 브레게(Abraham-Louis Breguet)가 개발한 장기로 2015년 시계 트렌드를 두른 후 후로 또 한번의 귀환이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진화된 투르비용 모델이 눈이 띄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로 두께가 불과 2mm인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트라메이컨 칸셀 투르비용. 예거 르플트르에서는 최초로 독특한 운동학적(kinematic) 효과를 내기 위해 3개의 축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투르비용을 선보였다. 링에 온트 최는 투르비용을 적용한 워치에 정확한 점핑 마니 카운터,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와 스톱 세컨즈, 피페추얼 캘린더에 어둠 속에서도 환한 빛을 뿜아내는 형광 코팅 다이얼을 장착해 최상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여 모든 이들의 기쁨을 뒤게 했다.



### 2 Variation in Detail

기존 모델에서 재해석 혹은 진화한 워치 모델이 주로 출시되다 보니 이럴의 소재나 사소한 디테일에 변주를 더한 워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불거리의 신제품들을 보면 다이얼에 변주를 주는 것이 올해 미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중 불거리 옥토 피니시모 스케치 에디션은 불거리의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이자 2014년 론칭 이래 지난 10년간 무려 9개의 신기록을 수립한 옥토 피니시모(Octo Finissimo) 라인 워치 다이얼에 자사 대표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그린 스케치를 담아 특별함을 더했다. 스케치 이미지에는 불거리 워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브리치오 부오나마사 스티글리안(Fabrizio Buonamassa Stigliani)의 손글씨를 탄생했다. 실물로 착각할 만큼 세밀하게 묘사한 트롬프뢰유(trompe-l'oeil) 그림처럼 미묘한 다이얼 바탕에 기념비적인 무브먼트 디자인을 더해왔으며, 블랙 PVD 코팅 및 빌드 플라스틱 마감한 길쭉한 핸즈와 다이얼 위에서 유영듯 시간을 표시한다.

### 3 Mini Lover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워치 트렌드 중 하나는 다운사이징이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으나 점점 럭셔리 시계에 영한 소비 자층과 대중이 투입되면서 파스트 워치로 타गत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듯. 더불어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워치가 점점 여성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남성은 물론 여성의 손목에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를 고려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태그호이어에서는 포물러 35mm 사이즈를 출시했으며, 튜더와 까르띠에, 샤넬, 소피드까지 많은 브랜드에서 여성 고객을 노린 미니 사이즈 워치를 출시했다. 특히 까르띠에 미니 사이즈는 가격적인 면이나 디자인적 면에서 샤넬스 러움 그 자체, 튜더의 클레어드 로즈 마는 셉트 와인딩 무브먼트와 날짜 표시 기능을 더해 작지만 강력한 기능을 선사한다.



까르띠에

튜더



## 경이로운 미학과 기술의 향연

이탈리아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의 미학과 섬세한 정인 정신, 월드 레코드를 경신하는 기술력까지. 워치메이킹을 위한 A to Z를 갖춘 브랜드 불가리에서 올해 선보인 워치 역시 미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면을 충족한다. 올해는 세르펜티부터 옥토 피니씨모, 옥토 로마까지 여러 컬렉션에서 신제품을 출시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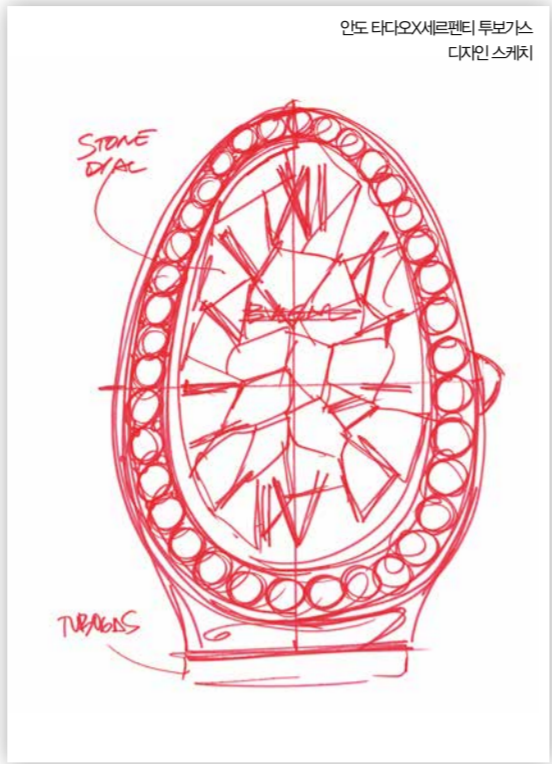
워치스 & 윈더스 기간 불가리는 제네바 도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힐스 호텔에서 신제품 소개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안도 타다오X세르펜티 워치부터 옥토 피니씨모에 이어 옥토 로마까지, 더 다채로운 컬렉션들을 함께 선보였다. 역시 이탈리아 정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터치가 장기간 불가리답게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 쓴 듯한 모습이 인상적. 더불어 워치메이킹 기술력에서 그 어떤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해냈다.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시리즈의 경우 가장 얇은 워치라는 타이틀을 탈환한 것. 몇 안 되는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우아한 이탈리아 감성과 정교한 스위스 워치메이



킹 기술력의 조화로운이 인상적이다. 옥토 로마는 작년에 이어 올 블랙 버전을 선보이며 불가리의 컬러에 대한 대담성과 소재를 다루는 기술 등을 뽐냈다. 디자인뿐 아니라 기술력까지 갖춘 명실공히 혁신적인 워치메이커이기에 가능하다.

### 계절에 바치는 찬가, 안도 타다오X세르펜티 투보가스

이탈리아 브랜드와 일본 건축가가 만나는 이 컬래버레이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선보였던 옥토 피니씨모가 그러했다.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Tadao Ando)와 함께했던 옥토 피니씨모는 심플한 디자인에 나선형의 순수한 선과 초승달을 상징하는 미카즈키(Mikazuki) 콘셉트를 불어넣어 시간의 본질을 포착하며 역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도 역시 안도 타다오와 함께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의 대상은 첫 번째 예술적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는 불가리 세르펜티 투보가스(Serpenti Tubogas) 컬렉션이다. 안도 타다오는 여성 워치이자 주얼 위치를 대표하는 세르펜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제인 자연의 활나적인 친란함을 담았다. 1940년대부터 불가리 스타일의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뱀을 형상화한 세르펜티 투보가스는 자연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라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워치로서 영원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동시에 원초적 힘이 깃든 부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 지점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빛의 변화를 건축에 담은 안도 타다오의 지향점과 맞아떨어졌다. 뱀이 계절에 따라 허물을 벗고 번신을 거듭하며 새로 태



어나듯 계절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워치의 얼굴인 다이얼에 담아낸 것. 이로써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네 가지 워치 컬렉션으로 완성된다. 다이얼에 각 다른 소재를 사용해 이를 표현했는데, 울어름부터 출시되는 나츠(夏, Natsu)는 햇살 가득한 숲의 무성한 강렬함을 반투명한 그린 어벤추린(aventurine) 스톤의 생동감과 어스름한 효과로 더욱 풍성하게 담아냈다. 옐로 골드와 스틸 소재의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가을이 오면 아키(秋, Aki)에서 마치 나뭇잎에 불이 붙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타이거 아이는 전체를 로즈 골드로 세팅하고 크라운에 핑크 루벨라이트로 포인트를 준 이 상징적인 세르펜티에 따뜻한 황금빛 광채를 선사한다. 겨울이 시작되면 후유(冬, Fuyu)의 아름다움이 화이트 머더오브펠의 상감세공으로 표현된다. 그 무지개 빛같은 반짝이는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아름답게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봄, 하루(春, Haru)는 생명 에너지의 부활을 알린다. 일본에서는 특히 봄빛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시기로, 이 리미티드 세르펜티 워치는 섬세한 핑크 머더오브펠 마키트리 장식으로 그 비전을 담아냈다. 불가리의 장인들은 이 비전을 시계 다이얼에 능숙하게 구현했다. 이들은 각 소재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조각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 다음 각 조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절단했다. 마지막으로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조립해 유기적인 표현력을 지닌 색상과 반사의 유희를 만들어냈다. 이 예술적인 배열을 강조하는 두 줄의 다이아몬드를 뱀 머리를 따라 세팅해 작품에 빛나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세르펜티 투보가스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컬렉션은 2025년 봄까지 시즌을 기념할 예정이다. 각 리미티드 에디션은 안도 타다오가 특별히 제작하고 서명한 패키지에 담겨 있으며, 시계 케이스 뒷면에는 안도 타다오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또 20개의 한정 패키지 세트 컬렉션은 이 네 가지 제품을 앙상블로 선보인다.

###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기준,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COSC

불가리는 이미 2022년에 1.8mm에 불과한 놀라운 두께의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는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위치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불가리 R&D 부서에서는 또 한 번의 도전을 감행한다. 또 한번 세계신기록에 도전하는 것. 2024년 결국 불가리는 해냈고 시계 제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아홉 번째 세계신기록인 1.7mm 두께의 하이엔드 기계식 워치를 완성해낸다.



새로운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COSC(Octo Finissimo Ultra COSC)는 역대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얇은 COSC 크로노미터이기도 하다.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는 이미 무브먼트의 두께에 대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케이스에 집중했다.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COSC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최적화해 케이스를 재작업함으로써 더욱 슬림한 프로파일을 완성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케이스 백은 메인 플레이트 역할을 하며 그 위에 수동으로 와인딩된 1백70개의 부품이 조립된 BVL180 매뉴팩처 칼리버를 구성한다. 1/10미cron 광학 측정 시

스템을 활용해 완벽한 치수에 가장 근접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COSC 인증 기계식 무브먼트는 울트라 라인에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도입한 최초의 제품이다. 직경 40mm, 두께 1.7mm의 시계에 적절한 견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밀도, 고강도, 초저항성 텅스텐 카바이드로 케이스 백과 메인 플레이트를 제작해 해결했다. 또 시계의 표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침과 분침,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대형 배럴, 이스케이프먼트는 베젤 입구의 원형으로 된 기하학적 구조와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미세하게 조정했다. 세계에서 제일 얇은 워치인 만큼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COSC는 전용 케이스를 통해 시계를 세팅하고 와인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케이스뿐 아니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전용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전용 케이스에 시계를 넣으면 원하는 시간을 프로그래밍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정 사이클이 시작된다. 단 몇 초 만에 시계가 완벽하게 조정되고 흠집을 데 없이 정밀하게 와인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집에 나만의 워치메이커를 들여놓는 것과 다름없다. 워치메이킹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COSC(104081)는 20피스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이외에도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라인에서 플래티넘 버전의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플래티넘을 추가 출시하며 세 가지 다른 소재와 컬러의 옥토 피니씨모 라인의 투르비용 위치를 선보인다. 새로운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플래티넘은 950 플래티넘으로 제작되었으며 브레이슬릿 역시 새틴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한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되었고, 통합 버클은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더욱 뛰어난 신뢰성을 보장한다(5천 회 테스트). 플래티넘 시계 최초로 BVL 180 매뉴팩처 칼리버를



탑재해 1.8mm의 놀라운 두께를 자랑한다.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플래티넘(103832)은 20피스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애호가를 위해 옥토 피니씨모 투르비용 역시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먼저 핑크 골드 소재의 옥토 피니씨모 투르비용 매뉴얼은 무브먼트의 슬림한 두께(1.95mm)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발산하는 경쾌한 감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틴 브러싱 및 폴리싱 마감 처리한 40mm 케이스에 장착된 스켈레톤 투르비용은 복잡한 메카니즘인 BVL 268SK 자체 제작 칼리버를 드러낸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무브먼트인 BVL 268SK 매뉴팩처 칼리버를 장착한 티타늄 소재의 옥토 피니씨모 투르비용 매뉴

얼은 40mm 케이스에 DLC 처리를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케이스 및 러버 스트랩의 블랙 컬러와 대비를 이루는 로즈 골드 핸즈와 챗터 링이 돋보이는데, 불가리가 사랑하는 소재와 컬러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대담함을 보여준다. 옥토 피니씨모 투르비용 오토매틱은 마이크로 블라스트 블루 마감 처리한 오토매틱 BVL 288 칼리버(1.95mm)를 탑재했다. 42mm 플래티넘 케이스(두께 4.95mm)는 폴리싱 및 새틴 브러싱 처리한 표면을 번갈아 선보이며 6시 방향의 플라이 투르비용을 비롯한 모든 휠과 기어가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을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전의 옥토 피니씨모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새로 선보이는 옥토 피니씨모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대치를 재정의하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다. 불가리는 또 한번 단순히 시간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상력과 탁월함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간다.

### 블랙의 권위자, 옥토 로마

작년 워치스 & 윈더스에서 옥토 로마에 집중했던 불가리. 그 당시 다양한 컬러와 베리에이션의 위치를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옥토 로마를 건너뛰었다면 시계 애호가들을 크게 실망시켰을 것이다. 이를 눈치챈 불가리는 앞서 소개한 워치 컬렉션들을 제작하는 데 힘을 쏟는 와중에 옥토 로마 팬들에게 기념비적 존재가 될 옥토 로마 블랙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다.

2012년에 처음 출시된 옥토 로마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작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이탈리아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 형태는 4세기에 로마의 상징적인 건축 유적지 중 하나인 막센티우스 바실리카(Basilica of Maxentius)의 둥근 천장을 연상시키는 8면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동시에 옥토 로마는 원과 팔각형의 본질을 포착한 과학적인 기하학이 돋보이는 초현대적인 작품이다. 오늘날 불가리는 이 블랙 마감을 옥토 로마 컬렉션의 두 가지 신제품, 날짜 기능을 갖춘 스틸 핸즈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 스틸 DLC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 스틸 DLC로 확장했다. 이 중 옥토 로마 스틸 DLC는 날짜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스틸 핸즈로 옥토 로마의 오리 지널 정신에 충실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 제품은 41mm 지름을 유지하며, 옥토 로마의 특징인 클루드 파리 패턴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차분하고 간결한 다이얼이 특징이다.

스위스 오토 오토로제리의 오랜 특징인 일체 디자인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블랙 DLC 마감으로 이중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멀리서 보면 블랙 컬러가 완벽하게 균일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피라미드 모양의 클루드 파리 효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빛을 포착해 독특한 반사를 선사한다.

이 아름다운 블랙 마감을 밤에 가장 매력적이다. 컬렉션의 상징적인 2개의 아워 마커인 '12'와 '6'을 포함한 인덱스와 2개의 핸즈는 슈퍼루미노바®로 옥토 로마의 다이얼을 장식하고 있다.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코트 드 제네브(Côte de Genève) 그레인으로 마감한 진동 메카니즘을 감상할 수 있는 자체 제작 BVL 191 무브먼트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옥토 로마 오토매틱에 탑재됐다. 더불어 퀵-릴리스 시스템(quick-release system) 덕분에 2개의 스트랩을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 다이얼의 클루드 파리 패턴을 반영한 텍스처를 특징으로 하는 러버 스트랩과 블랙 엘리게이트 스트랩, 두 가지로 출시된다.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생영민](#)



**interview with** **Frédéric Grangé**

**워치스 & 윈더스 기간에는 인터뷰와 인터뷰어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한다. 20~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브랜드의 현재와 미래가 느껴지기도, 프레데릭 그랑지에 사장님의 대화에서 느낀 샤넬 워치 & 주얼리의 현재는 매우 단단했다. 그리고 미래는 아주 뚜렷하고 영리했다.**

**Stylechosun 샤넬의 워치와 화인 주얼리 각각의 2024년 미션은 무엇인가?** 워치와 화인 주얼리는 전통적으로 소재, 제조사, 역사에 기반한 제품이다. 럭셔리 세계 측면에서 보자면 항상 피라미드의 정상에 군림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샤넬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샤넬이 보유한 창의성을 완벽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인 아르노 샤스탱의 아름다운 작품과 샤넬 매뉴팩처 및 파트너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워치메이킹이 어우러진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주로 워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샤넬 주얼리도 마찬가지로.

**Stylechosun 명품업계에 20년 넘게 몸담아온 길로 안다. 샤넬이 다른 브랜드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주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샤넬은 가족 소유의 100% 비상장 독립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샤넬은 럭셔리업계 대부분과 차별화된다. 럭셔리업계에서 가족 소유의 완전히 독립된 100% 비상장 기업은 매우 드물다. 정말 극소수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건 대기업이다. 소기업은 몇 곳 있다. 하지만 대기업 규모라면 롤렉스 정도이고, 에르메스도 가족 경영에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상장은 아니다. LVMH, 리치몬트, 케어링은 당연히 아니고. 내가 독립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초기의 창의성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워치메이킹업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워치메이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제품으로 지금으로부터 30년, 50년 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워치를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는 1년이나 5년 후가 아닌 20년, 3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이 정도로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려면 매우 대규모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치메이킹 업계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라 있다. 순수한 워치메이킹 브랜드와 패션 라이선스에 의존하는 브랜드다. 샤넬의 선택은 처음부터 순수한 워치메이킹 브랜드였다. 향수, 패션에서도 그랬고, 워치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프리티클 클락 쿼터 워치

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20년, 30년 후를 생각하고 꿈꿀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후 사람들이 워치스 & 윈더스 2024 아카이브를 보면서 이런 차별점이 샤넬의 전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여겨지길 바란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

**Stylechosun 샤넬 워치에 입문하려는 20대 여성에게 조언한다면, 샤넬 워치를 어떤 단계에 따라 경험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샤넬 워치의 시작, 기원부터 접하길 추천한다. 그런 점에서 첫 샤넬 시계라면, 샤넬 프리에르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징적인 형태 아말모 샤넬 워치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백 년이나 2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다른 워치 메종에 비한다면 1987년에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아이코닉한 이 프리에르 워치와 함께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가 착용한다면 프리에르를 권한다. 내 딸도 20대인데, 프리에르를 소장하고 있다. 가장 이치에 맞는 선택이다. 샤넬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순간 샤넬 여성이 될 수 있다. 방돔 광장도, N5도 있고, 레디와 메탈이 섞인 스트랩이 달린 클래식 백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요소도 담겨 있다. 샤넬의 매력이 느껴지면서도 인텍스도 없는 심플한, 솔직히 천재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프리에르지만,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Stylechosun 다음 질문은 J12에 대한 것이다. J12는 디자인 자체가 워낙 강렬하고 아이코닉해서 매해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작년과 비슷한,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 워치가 되어버린다는 평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0년 블랙, 그리고 2003년 화이트 컬러로 출시된 J12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워치메이킹업계에서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았다. 정말 흔치 않은 경우다. 지금은 케니시 무브먼트까지 장착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 38mm 든 33mm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이콘 스토리의 일부이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같은 디자인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건 사실 좋은 것이다. 워치메이킹 세계의 아이콘을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도 같은 모습을 유지해서다. 물론 이들도 우리처럼 약간의 변화는 주지만 여전히 한눈에 같은 디자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



꾸뛰르 에를락 컬렉션 중 마드모아젤 J12 꾸뛰르 워치



무슈 드 샤넬 수퍼리미티드 인텍스 블랙 에디션

요 요소를 지킨다. J12의 흥미로운 점은 아르노 샤스탱의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창작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여기 있는 꾸뛰르 어를락 컬렉션에도 몇몇 J12 모델이 있다. 형태는 J12 고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유지하지만, 다이얼을 보면 샤넬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이코닉한 형태는 그대로지만 완전히 다른 J12다. 매년 J12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때마다, J12 라인은 매우 빠르게 매진된다. 수집가들이 사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오리지널 J12를 기반으로 하고, 따라서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Stylechosun 남성 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에 바젤에서 샤넬이 론칭한 워치를 추켜세웠는데, 브랜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1을 탑재한 남성 워치였다. 레트로그레이드 마닛 카운터 등 미학적으로도 꽤 마음에 들어 원고를 쓰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뒤로 샤넬은 여성 워치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강했다. 남성 워치 컬렉션을 더 키우고 발전시킬 계획은 없나? 성향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샤넬에 입사한 게 그 당시에. 오리지널 남성 워치인 무슈 드 샤넬, 그리고 그 후에 칼리버 1을 바탕으로 소개한 다양한 버전은 기능과 디자인도 뛰어났지만, 남성 시장을 키울 수 있었던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샤넬은 전체적으로 95%가 여성 아이템인 브랜드다. 패션은 여성용만 있고, 향수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용이다. 주얼리도 시계도 마찬가지로 95%가 여성용이고, 이것이 샤넬의 DNA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때로 디자인에 남성적 영향이 반영되기도 한다. 과거 가브리엘 샤넬도 마찬가지였다. 샤넬 스타일에 끌리는 남성들도 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미래, 예를 들어 내년 워치스 & 윈더스에서 유니섹스의 세계로 한발 더 나아간 모델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샤넬은 남성이 아닌 여성 브랜드로 남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물론 이제는 특별한 남성 워치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확실히 남성 수집가, 남성 시계 애호가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무슈 드 샤넬 워치가 중요하고, 로맹 고티에(Romain Gauthier)의 도움으로 완성한 무슈 드 샤넬에 담긴 칼리버 1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소중하다. 지금 내 손목에 있는 이 시계는 작년 모델인 투르빌론 메테오라이트(Tourbillon Meteorite)다. 샤넬이 선보인 가장 아름다운 워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55개 한정판이었다. 워치메이킹과 남성 워치 애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워치다. 이것은 칼리버 5가 진화한 버전이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지금 소름에 전시되어 있는 칼리버 6을 장착한 오토마톤 워치다. 이 워치는 남성들도 착용할 수 있다. 오토마톤 기능은 보기 드문 기능인 데다 마감 처리 방식, 특히 세라믹 소재와 브레이슬릿의 세공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멋지지 않다.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남성용 시계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Stylechosun 다음 질문은 고객에 관한 것이다. 이 신제품들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리고 샤넬 워치와 화인 주얼리를 통해 고객이 했으면 하는 경험은 무엇인가?** 샤넬 워치의 창조에 쏟아부은 열정과 창작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오늘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의 니콜라스 폴크스(Nicholas Foulkes)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창작의 자유와 높은 수준의 워치메이킹을 완벽하게 결합해, 오토마톤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품만 보면 참 기발하다. 흥미롭고도 장난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워치 그 자체는 매우 진지하다. 고객들이 이를 이해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해주겠지만,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 솔직히 오늘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지 않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워치를 사는 이유는 욕망이고, 그것은 워치에 깃든 뛰어난 창작 과정에서 나온다. 어느 정도 수준의 시계를 착용해본다면, 완벽한 워치메이킹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조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 시작은 창작이다. 진심으로 고객들이 이를 느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꼭 하이엔드인 오토마톤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쇼룸에서 있는 좀 더 저렴한 버전에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다이얼



꾸뛰르 에를락 컬렉션 중 J12 꾸뛰르 워치상 오토마톤 칼리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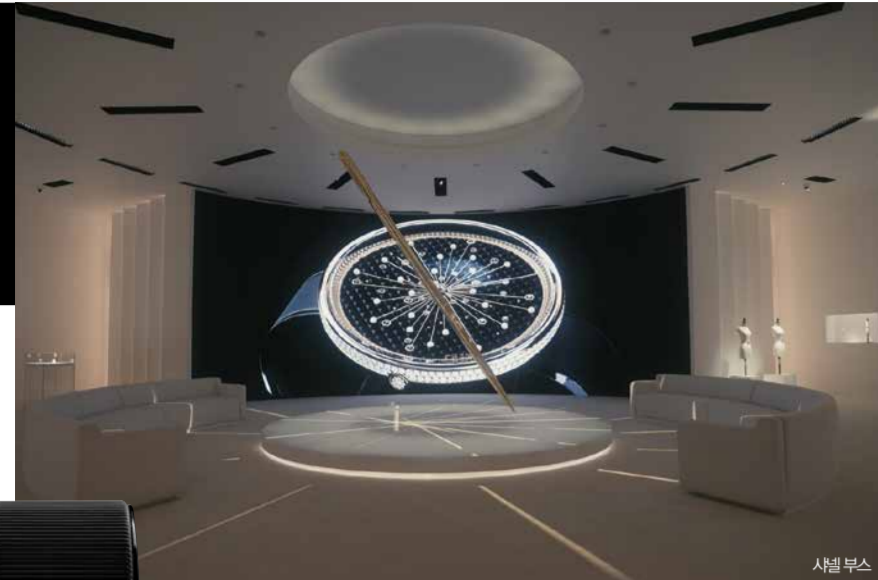
뮤지컬 클락 꾸뛰르 워치상

에 가위와 바늘 모터브를 올린 J12에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줄자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에르 루반 꾸뛰르'도 마찬가지다. 앞서 이야기한 20대 고객이 프리에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워치는 이것이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데다 샤넬이니까. 이처럼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샤넬에만 있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뮤지컬 클락 꾸뛰르 워치상의 가격은 2백60만 유로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 이번의 작업은 극도로 진지하다. 하지만 뮤직 박스 자체는 음악, 디자인, 움직임까지 모두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고객이 평생 매일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뮤직 박스가 필요한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1시간도 안 되어 팔렸다.

**Stylechosun 마지막 질문이다.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선보인 신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뮤지컬 클락 꾸뛰르 워치상은 정말 특별하다. 하나뿐인 유니크 피스에다 독보적이다. 아르노 샤스탱의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제작 과정에서 경험한 일도 즐거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오토마톤이다.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워치메이킹 측면에서도 이런 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 도달했다는 것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어느 브랜드에나 투르비용은 있다. 투르비용은 클래식한 컴플리케이션 기능이고, 다들 갖추었기 때문에, 샤넬에서 투르비용을 만들기로 했을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 투르비용을 원했고, 특별히 원했다. 그래서 투르비용을 만들면서 다이아몬드의 주얼리 세공을 비롯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토마톤은 다른 이야기다.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오토마톤이든 샤넬의 미래에 등장할 오토마톤이든 모두 하나하나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움직임을 위해 매년 다른 디자인과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블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워치메이킹 여정에서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라 할 수 있다. 투르비용 이상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누구도 시계가 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워치는 대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갖고 싶단다. 아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워치가 필요한 이유는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독보적이고 매우 샤넬스럽다. 게다가 그 안에 가브리엘 샤넬도 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워치다. 에디터 장민재가 번역한지 취재



CHANEL WATCHES



샤넬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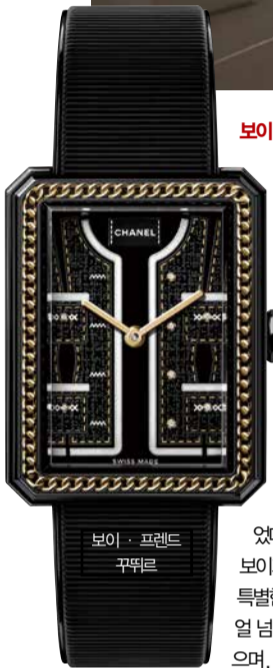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칼리버 5

프리미어 커프 워치



J12 X-Ray 핑크 에디션



보이 · 프렌드 꾸뛰르

**보이 · 프렌드 꾸뛰르** 샤넬 오프 오를로지 및 오를로지 캡슐 컬렉션인 꾸뛰르 어클락에서는 샤넬 아틀리에의 풍경, 재봉사가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에서 영감을 얻어 곱두, 가위, 핀 같은 강봉기 아틀리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디자인에 접목했다. 그중 보이 · 프렌드 꾸뛰르 워치는 아이코닉한 샤넬 트윈드 재킷 패턴을 다이얼에 올렸는데, 8개의 다이아몬드로 버튼을 표현하고 실버 브레이드로 악센트를 했다. 18K 골드 체인으로 장식한 베젤은 트윈드 재킷 패턴의 체인을 연상시킨다.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칼리버 5** 2022년 샤넬은 J12의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워치를 선보였는데, 올해는 매트 블랙 세라미크와 화이트 세라미크 버전을 출시했다. 케이스 지름 38mm에 플라잉 투르비용을 적용한 샤넬 매뉴팩처의 기계식 수동 무브먼트 칼리버 5를 장착했으며,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프리미어 커프 워치** 아이코닉한 향수 N5의 팔각 보를 향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래커 다이얼과 클래식 칼팅 핸드의 리더와 체인을 엮은 스트랩을 차용한 디자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리미어 커프 워치. 올해는 액세서리 같은 새로운 착용 방식의 커프 워치와 벨트 워치를 선보였는데, 그중 커프 워치는 18K 옐로 골드 코팅한 스틸 케이스 뒷면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사이즈는 19.7x15.2mm. **J12 X-Ray 핑크 에디션** 가브리엘 샤넬이 자신의 컬렉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한 컬러는 블랙 다음으로 핑크였다. 그런 의미로 섬세한 핑크 컬러를 적용한 특별한 디자인의 J12와 보이 · 프렌드 워치를 탄생시켰는데, 그중 J12의 X-ray 핑크 에디션은 시리얼 넘버를 새겨 12개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핑크 세라미크 크리스탈과 18K 베이지 골드를 매치했으며, 케이스 지름은 38mm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CHOPARD



L.U.C.XPS 포레스트 그린



L.U.C. 쿼트로 스피릿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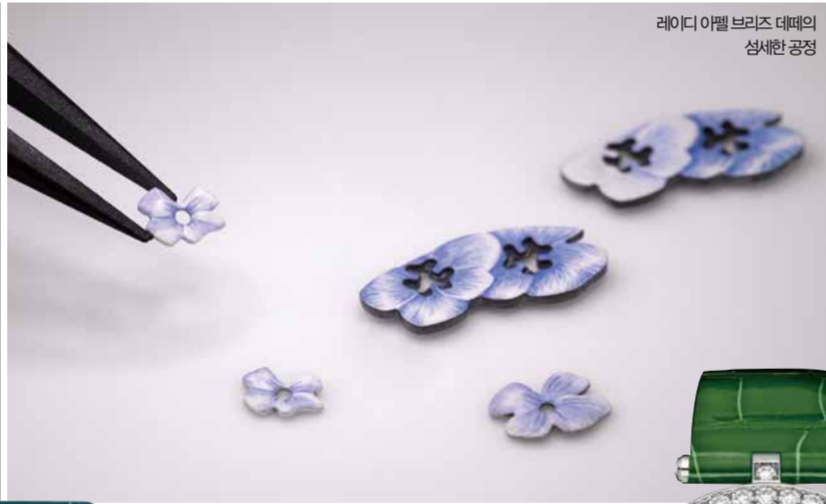
알파인 이글 41 SP TT

**L.U.C.XPS 포레스트 그린** 쇼파드의 워치메이킹 DNA의 상징인 L.U.C. 올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총 4개의 새로운 L.U.C 컬렉션을 선보이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제품 중 하나는 '포레스트 그린'이라 명명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워치. 섀터 타입인 다이얼 디자인으로 빈티지한 매력에 돋보이는 외관과 달리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점이 인상적이다. 지름 40mm 루센트 스틸™ 케이스에 리그부터 시그처 로동 도금 도파네 시그처늘가 지쇼파드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으며, 가장 엄격한 정확도 검사를 통과한 L.U.C 96.12-L 칼리버를 탑재했다. **L.U.C 쿼트로 스피릿 25**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매뉴팩처에서 처음 선보인 L.U.C 98.06-L 무브먼트를 장착한 1백 개 한정판 워치. 최대 8일에 달하는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쇼파드의 독점적인 쿼트로 기술(quadro technology)에 따라 4개의 태엽통을 장착했으며, 덕분에 자율성 면에서 보기 드문 정밀 이워 시계가 완성되었다. 장인이 수작업 해 완성한 블랙 그랑 피 에-멜 다이얼 위에는 화이트 골드 연출한 흰색 구멍들과 대형 이리비아숫자만이 지라해 엄숙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선사해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한다. **알파인 이글 41 SP TT** 순수한 디자인과 서련된 미학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럭셔리 스포츠 워치, 알파인 이글. 이번 신제품인 알파인 이글 41 SP TT는 쇼파드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두께 3.3mm의 아주 얇은 L.U.C 칼리버 96.17-S를 탑재했으며, 마치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무브먼트의 작동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그 뿐 아니라 알루미늄 및 티타늄과 결합한 5등급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무식과 해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였다. 케이스 지름은 41mm이며 두께는 8mm에 초경량 소재까지, 알파인 이글의 또 한번의 진화가 아닐 수 없다. 문의 02-6905-3390

VAN CLEEF & ARPEL



레이디 데이 앤 나잇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의 섬세한 공정



레이디 아펠 데이 앙상페의 제작 과정

레이디 아펠 데이 앙상페

**레이디 아펠 데이 앤 나잇 및 레이디 데이 앤 나잇** 2008년 최초 선보인 레이디 아펠 데이 앤 나잇 워치가 3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 2024년 새로운 두 가지 모델로 재탄생했다. 두 모델은 케이스 지름의 크기와 칼리 구성에서 살짝 차이가 있으나 지평선에 떠오르는 달과 해를 표현했다는 점만은 같다. 38mm 케이스 모델은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표현했으며 33mm 케이스 모델은 블루 컬러의 기묘세 문양이 들어간 머더오브펠을 사용했다. 두 모델 모두 무라노에서 생산한 아벤추린 글라스 다이얼을 사용해 별이 이글같이 빛나는 밤하늘을 동화적으로 묘사해 경이로운 매력을 전한다.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 메종의 대표 영감의 원천인 자연, 그중 여름 아침의 싱그러움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정원에 활짝 핀 싱그러운 꽃들과 그 주변을 여유롭게 유영하는 나비들을 형상화했다. 다양한 에나멜 기법을 적용해 제작한 이 모든 꽃과 줄기, 그리고 나비는 온-디멘드 에-메이션 모듈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바람에 흔들리듯 서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디 아펠 데이 앙상페** 티라이즈 소재로 다이얼을 가득 장식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늘 배경을 완성했다. 여기에 직접 개발한 파스너 에나멜 기법을 적용해 스페르타이트 가닛으로 표현한 태양 빛을 더욱 강렬하고 신비롭게 형상화했다. 여기에 브랜드만의 아이코닉한 페어리(fairy)가 소중한 보석을 채워주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다이얼에만 2년의 개발 기간과 1백80시간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진정한 아트 피스라 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PIAGET



피아제 폴로 79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 투르비용



피아제 폴로 데이트

피아제 폴로 데이트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 투르비용**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피아제의 아심자. 2018년에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워치인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에 약 6년 뒤인 2024년 투르비용을 탑재한 것이다. 이 투르비용 워치의 두께는 기존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와 같이 2mm에 불과하다. 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이진 모델과 같이 무브먼트 자체가 손목에 닿게 했으며, 약 1cm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특허를 획득한 스테가(Staggered) 타입의 와인딩 시스템을 기념해 케이스 밴드에 통합했다. 따라서 작동 시 별도의 전용 와인딩 도구가 필요하다. 지름 41.5mm 케이스 역시 일반 워치보다 훨씬 얇은 0.2mm 두께의 세라미크 크리스탈을 적용했다. **피아제 폴로 79** 피아제 하면 떠오르는 아이코닉 워치, 폴로 워치가 창립 150주년을 맞아 재탄생한다. 1979년 처음 선보인 이후 45년 만이다. 럭셔리 스포츠인 승마를 사랑하던 창립자 이브 피아제가 처음 선보였던 그 당시 폴로 워치의 DNA를 그대로 가져온 점이 인상적. 지름 38mm 18K 골드 소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브리시 차탄 블랙 링크를 교차해 브리슬릿부터 케이스, 다이얼까지 통일성을 준 과거 디자인을 그대로 선보이며 무브먼트 핀츠 칼리버 대신 울트라-신 자체 제작 셀프 와인딩 칼리버 1200P1을 탑재해 현대적인 워치로 탈바꿈했다. 다시 돌아온 폴로 오리지널은 현대에서도 서련미와 우아함을 뽐낸다. **피아제 폴로 데이트** 앞서 과거 첫 폴로 워치를 오미주한 제품과 달리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매혹적인 듀얼 워치도 출시한다. 먼저 지름 42mm 스틸 소재 케이스에 브라운 스트랩을 갖춘 버전과 지름 36mm 케이스에 91개의 브랄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베이징 시스템을 갖춘 버전이다. 각각 피아제 매뉴팩처 기계식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1110P와 500P1로 구동하며, 다이얼은 역시 과거 폴로 워치의 시그니처였던 단 거론 디자인을 적용했다. 각 3백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1668-1874



VACHERON CONSTANTIN



오버시즈 그린 다이얼

**오버시즈 그린 다이얼** 바세론 콘스탄틴의 아이코닉한 스포츠 워치, 오버시즈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작년부터 다이얼에 대담한 컬러를 적용한 오버시즈는 올해는 강렬한 컬러의 그린을 선택한 것. 여기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워치이지만 한다는 고집을 깨고 스트랩 탈착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유연하고 다용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즈와 구성 역시 네 가지로 출시했는데, 가장 작은 35mm 쥘 세팅된 버전부터 42.5mm의 크로노그래프, 41mm의 듀얼 타임과 데이트 버전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골드와 어울리는 그린 컬러감을 찾기 위한 바세론 콘스탄틴의 노력이 엿보인다. **더 버블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바세론 콘스탄틴 또한 이번 2024 워치 & 원다스에서 월드 레코드를 달성한 브랜드 중 하나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그랑 컴플리케이션 워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라 불리는 이 워치는 최초의 차이스 퍼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했으며, 무려 63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혁신적인 마스터피스라 할 수 있다. 차이스 캘린더의 경우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며, 그로써 발생하는 모든 오차를 완벽히 보완했다. 총 2천8백77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워치는 매종이 과거 레퍼런스 57260으로 달성한 기록을 능가한다. 물론 그만큼 사이즈 또한 거대하다. 하지만 시계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복잡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와 가치로 기록될 것이다. 문의 1877-4306

더 버블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ZENITH



데피 스키아리인 크로노그래프

**데피 스키아리인 크로노그래프** 2022년 최초의 41mm 스물 세컨드 데이트 버전으로 시즈해 스켈레톤, 샌드 세컨드 데이트, 투르비옹까지 출시하며 고공 행진하던 데피 스키아리인이 이번 워치 & 원다스에서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번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지름 41mm 스틸 케이스는 1969년 오라지널 데피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쿼터링에 가까운 팔각형 케이스에 12각 베젤을 갖춘 특징적인 모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렉스트랩 체인지 메커니즘을 도입해 별도의 도구 없이 스틸 브레이슬릿에서 래퍼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살짝 오버사이즈로 구성된 세로 중첩되는 3개의 카운터 디자인 역시 포인트. 엘 프리메로 3600 칼리버로 구동하며 메탈릭 블랙, 블루, 실버 컬러의 다이얼로 선보인다. **데피 인스트림 다이버**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600m의 충격적인 방수 성능으로 화제를 모은 데피 다이버 워치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인다. 앞서 2021년 론칭한 데피 인스트림 라인의 연장선상으로 말 그대로 극한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외관과 성능으로 무장했다. 블랙과 오렌지 혹은 블루와 오렌지, 두 가지 컬러 버전으로 출시하며 케이스는 모두 동일하게 지름 42.5mm의 가벼운 티타늄 소재다. 3개의 링크를 갖춘 티타늄 브레이슬릿과 2개의 추가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엘 프리메로 3620-SC 오토매틱 고정된 매뉴팩처 칼리버로 구동한다. 문의 02-3479-1805

데피 인스트림 다이버

HERMÈS



이쓰 코러스 스텔라룸

**에르메스 컷** 이 시계의 매력인 기하학적 미학은 특정 각도에서만 드러난다. 새틴 및 폴리싱 마감 한 케이스의 조화로운 비늘과 날렵한 라인에서 비롯된 광채가 독특한데 1시 30분 방향에 배치한 크라운과 인체적인 숫자 인덱스는 심플한 라인과 어우러져 생김새까지 더해준다.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 H912로 작동하며 여덟 가지 컬러의 라퍼 스트랩과 브레이슬릿 중 선택할 수 있고, 스틸 또는 골드 로즈 골드 버전, 그리고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없는 버전으로 출시한다. **이쓰 퓌아틀레** 지름 43mm의 티타늄 또는 로즈 골드 케이스에 3축 투르비옹과 튜닝 포크 마스터 리피터를 장착했다. 다이얼의 사파이어 돔을 통해 2개의 H가 얹혀 있는 형태의 3축 투르비옹과 미러 폴리스 처리한 티타늄 캐리커를 볼 수 있는데, 3축 투르비옹은 3개의 별도 축과 각기 다른 회전 속도를 갖추었으며 300초, 60초, 25초로 1회전, 곡선과 편심 형태의 이워 서클 안에 적색된다. 시간, 분은 질주하는 밀착형 가늘어진 아라비안숫자로 표시되며 길고 꼬임의 시계바늘을 이워 서클 주변에 배치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지리한 길고 단단한 강철 공을 차는 헤마의 소리는 대성당 종소리를 연상시킨다. **이쓰 코러스 스텔라룸** 인그레이빙과 미니어처 페인팅, 이블리케 기법을 적용한 이 시계는 시대를 초월한 미학을 지니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에르메스의 실력을 대변한다. 실크 스킵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 일라스타이터 다이아몬드 노우라가 디자인했는데, 대담한 말을 활짝 열고 있는 해골 기사의 모습이 독특하다. 9시 방향의 푸석에 연결된 스프링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고딕 모티브는 황금 별자리 주변을 돌리다며 춤춘다. 남성 기수와 여성 기수 각 6개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8-542-6622

이쓰 퓌아틀레



에르메스 컷

interview with **Guillaume de Seynes**

인터뷰를 위해 예약한 룸이 시간이 되어도 오픈되지 않아 라운지에서 그와 함께 기다리게 되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이런저런 말을 건넸는데, 푸른 눈동자를 반짝이며 반갑게 대답하는 모습이 같에서 만난 친근한 유럽 할아버지 같았다. 그는 에르메스 그룹 부회장(생산 및 투자 부문 총괄)이자 라몽트르 에르메스 매니징 디렉터(시계 부문 총괄 대표), 그리고 에르메스 기운의 6대손, 기욤 드 센이다.



이쓰 퓌아틀레



**Stylechosun** 에르메스 워치는 워치 매종이 팔자는 세계와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다.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워치 & 원다스에서 선보인 에르메스 부스가 가장 좋은 답변일 듯하다. 우리는 에르메스만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계의 기술적 측면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유니크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좋은 예시 가 라몽트르 에르메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쓰 칼렉션이다. 1978년에 론칭한 매우 독창적이고도 오리지널한 시계인데, 얼핏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둥근 케이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대칭형의 독특한 케이스이며, 숫자 인덱스 역시 유니크하다. 45년 전 당시,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시계였다.



에르메스 컷

**Stylechosun**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에르메스만의 창의력과 접근법은 무엇일까? 에르메스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것에 있어 굉장히 자유롭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숫자 인덱스인데, 칼렉션별로 각기 다른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는 하우스는 워치메이커 중 에르메스가 유일할 것이다. 이쓰, 케이프 코드, H08 등 칼렉션마다 독특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하고 있다. 또 형태적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때도 기존 정통 워치메이커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이쓰 로즈 드라본은 2019년 처음 발표된 문페이즈 시계인데, 여느 문페이즈 시계들과는 미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이얼 위쪽 위성이 돌며, 북반구와 남반구, 각기 다른 워치에서 보이는 2개의 달을 한 번에 보여주는 형태의 다블 문페이즈 시계는 다른 워치메이커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계다.

**Stylechosun** 올해 신제품 중 가장 눈에 띄어야 할 제품과 그 이유는? 신제품 중 특히 이쓰 퓌아틀레와 에르메스 컷이 앞에서 말한 에르메스만의 창의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컴플리케이션 워치 이쓰 퓌아틀레는 중앙에 3축 투르비옹이 위치하며, 마스터 리피터가 결합했다. 투르비옹은 모든 워치메이커가 제작하는 매우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에르메스만의 유니크함을 담은 특별한 투르비옹을 완성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에르메스 컷은 에르메스만의 특별한 스타일과 차별성을 잘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심플해 보이지만 심플하지 않은 형태, 원형 시계 같지만 사실은 완벽한 원이 아닌 시계, 여기에 타이포그래피까지 자유롭게 창조성을 발휘한 작품이다.

**Stylechosun** 패션에서는 매 시즌 '에르메스만의 워치'를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 워치 포인트를 좋아하기도 해서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시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에 담고 있-? 패션과 시계가 차이가 있다면 시계는 기술적인 제품이라는 점이다. 에르메스 시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노하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워치메이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계에 담긴 에르메스만의 자유로움이란 스트랩 컬러를 들 수 있다. 가죽이나 실크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컬러에 대한 전문성을 스트랩 컬러로 표출한다. 또 한 가지는 에르메스 시계는 클래식해 보이지만 클래식하지 않은 것이다. 이쓰 칼렉션은 원형 시계처럼 보이지만 클래식한 원형이 아니며, 케이프 코드 역시도 사생활 시계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시계형이 아니다. 이렇듯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것 같으면서도 이를 한 곳 비껴간 특유의 스타일적 독창성이 우

리의 모든 시계 칼렉션에 담겨 있다. 이처럼 완벽하게 자유로운 스타일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에르메스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다블 투어 스트랩이다. 에르메스가 직접 시계 제조를 시작한 것은 나의 증조할아버지(장-루이 뒤마)가 스위스에 라몽트르 에르메스를 창립했을 때부터다. 당시에도 에르메스는 직접 공방에서 스트랩 제작 작업을 했다. 이후 마틴 마르자르팡이 에르메스의 여성 RTW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을 당시 선보였던 손목에 두 번 씩는 다블 투어 스트랩은 그때까지 시계업계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이 제품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에르메스는 기존 시계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은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성을 펼쳐내고 있다.

**Stylechosun** 이쓰 코러스 스텔라룸 같은 예술적인 시계는 아이기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지어낸다.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예술적 기법이 돋보이는 메테에 다른 제품의 타겟 고객은 누구이고 친한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에르메스의 메테에 다른 제품은 약 10년 전 탄생했다. 이것을 제작한 이유는 실크 등 다른 메테에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모티브를 최고의 장인 기술로 시계 다이얼을 통해서도 선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니크 피스 혹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는 이 시계들에는 에-베를링, 미니어처 페인팅, 가죽 혹은 우드 마티트리 등 다양한 장인 기술이 적용된다. 이러한 시계들은 에르메스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시계 애호가 혹은 시계에 담긴 에르메스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사랑하는 에르메스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한다.

**Stylechosun** 이쓰 퓌아틀레에는 에르메스의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스타일이 결합되었다 할 수 있다. 실루엣이 참 독특한데, 아웃핏을 조인한다면? 지금 우리는 다양한 스타일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에르메스가 넥타이를 만들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재킷을 매치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하지만 시계에 있어 반드시 어떤 스타일에 착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쓰 퓌아틀레는 스타일이 조금 강렬하고 두꺼운 두꺼운 편이지만, 여성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로 남성이 착용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정장과 어울리거나 캐주얼이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시계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제품과 노하우,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개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tylechosun** '에르메스 컷은 젊고 웨어러블한 데일리 시계로 적합할 듯하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고객들이 좋아하며 이 시계를 선보였는지? 에르메스는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하우스가 아니고, 이는 시계뿐 아니라 다른 메테에도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타겟 고객층이 존재한다고 여겨지 않는다. 에르메스 컷은 여성을 위해 선보이긴 했지만, 스포티한 면도 지니고 있고 뛰어난 성능을 갖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르메스의 본질에 부합한다.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본질은 일상에서의 우아함이다. 에르메스는 오토 쿼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려입은 파티가 아닌 일상에서 우아함을 추구하는 하우스이고, 이 부분도 에르메스 컷이 완벽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삶, 즉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아함을 드러내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다.

**Stylechosun** 업계에서는 고급스럽고 심세한 장인 정신을 표현할 때 '00개의 에르메스라는 표현을 쓴다. 기운의 6대손으로서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6대손, 즉 1백80년 이상, 거의 1백90년의 역사를 거쳐 우리가 지켜온 철학이 품질에 대한 전통함, 창의성, 창조성 등에 대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 에티카 장인(재미한히 재해



이쓰 코러스 스텔라룸



MONTBLANC



몽블랑 아이스드 씨 제로 옥시전 딥 4810

**몽블랑 아이스드 씨 제로 옥시전 딥 4810** 43mm 티타늄 케이스로 완성하고, 케이스 백에는 다이아가 열을 아래에서 다이빙할 때 보는 풍경이 3D 인그레이빙으로 장식되어 있다. 다이얼에는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푸른 얼음 컬라지를 감상할 수 있다. 핸즈, 인덱스 그리고 12시 방향의 도트에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입혀 저조도에서 푸른 색조로 빛나도록 했다. 약 5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MB 29.29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몽블랑 아이스드 씨 오트메틱 데이트 브론즈 톤 다이얼** 2022년 출시해 주목받았던 라인으로, 이번에는 브론즈 톤과 버건디 톤 컬러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라인으로 선보였다. 블랙 글레시어 패턴 다이얼과 따뜻한 느낌의 브론즈 톤 케이스를 결합해 새로운 미적 감각을 선사한다. 부식과 녹에 대한 내성이 높은 루프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케이스가 특징이다. 문의 1877-5408



몽블랑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브론즈 톤 다이얼

PANERAI



섬머저블 GMT 루나로사 티타니오 PAM01507

**섬머저블 GMT 루나로사 티타니오 PAM01507** 인덱스와 아워 핸드가 1백80분 지난 후 전작 기준 10% 더 밝은 빛을 자아내는 새로운 슈퍼루미노바® X2(Super-LumiNova® X2)를 적용했다. 또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40% 더 가벼운 무게와 60% 더 높은 경도를 지닌 5등급 티타늄 소재의 42mm 케이스가 특징이다. 두께가 단 5.46mm에 불과한 오토매틱 P.900/GMT24H 무브먼트는 양방향 회전축을 이용해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섬머저블 쿼터타워트로 루나 로사 티-세라미크™ PAM01543** 세일링 세계를 위해 혁신적으로 개발한 세라믹 코팅 소재인 티-세라미크™로 완성한 뉴 워치로, 그레이 차리한 화이트 매트 다이얼이 심플한 멋을 배가하며 레드 컬러의 스톤 세컨즈 핸즈로 세일링 팀에 찬사를 보내는 파네라이의 DNA를 담았다.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두께가 단 4.2mm에 불과한 칼라버, 오토매틱 P.900을 장착했다. 약 500m의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문의 1670-1936



섬머저블 쿼터타워트로 루나 로사 티-세라미크™ PAM01543



HUBLOT



MP-11 파워리저브 14데이즈 워터 블루 사파이어 45mm

**MP-11 파워리저브 14데이즈 워터 블루 사파이어 45mm** 아이코닉한 MP-11은 그 동안 세라믹, 스텐, 매직 골드, 3D 카본같이 다양한 소재로 소개되어왔다. 올해는 과거부터 사용한 사파이어에 새로운 워터 블루라는 컬러를 얹어 선보인다. 투명한 칼라감이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빛을 선사한다. 작동 중인 9시와 10시 방향 사이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이 메커니즘과 조화를 이루도록 밸런스는 반대쪽 2시 방향에, 레이트는 4시 방향에 섬세하게 배치했다. 또 7개의 베젤로 무려 2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HUB9011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백방 유니코 오렌지 세라믹** 그동안 백방은 블루, 그레이, 그린 그리고 레드, 옐로에 이어 다채로운 칼라감의 워치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땀한 오렌지 컬러를 더해 컬러 사용의 지평을 넓혔다. 42mm 케이스로 선보이며, 베젤에는 티타늄 H형 베젤 스크류 6개가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양쪽 측면에 배치한 리그로 선박의 등고 청을 연상시킨다. 유니코 크로노그래프 매뉴팩처 칼라바인 MHUB1280을 장착해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6시 방향에는 휠, 9시 방향에 스톤 세컨즈, 3시 방향에는 60분 카운터와 일체형 날짜창을 배치해 안정감을 주는 바이컴팩스 레이아웃이 특징이다. 2백50피스 한정 제작되었다. **백방 유니코 핑크 사파이어 42mm** 핑크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완성해 워치 하우스의 색감과 미감을 부각한다. 유니코한 칼라감과 작지 않은 42mm 사이즈의 조화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워치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HUB1280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1백 피스 한정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0-1356



백방 유니코 오렌지 세라믹



백방 유니코 핑크 사파이어 42mm

GMT-마스터 II

ROLEX



파페추얼 1908

**GMT-마스터 II** 롤렉스는 2023년에 선보인 18K 옐로 골드 시계와 옐로 롤레조 버전이 이어 그레이와 블랙 세라믹 소재의 세라믹롬 베젤 인서트를 장착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그린 색상의 24시간용 시침을 통해 스포티한 개성을 발산하며, 아이코닉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과 유연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주빌리 브레이슬릿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파페추얼 로터를 사용한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버 3285로 구동한다. **파페추얼 1908** 950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했으며, 리아스 그레이인 차리한 기호세 모티브로 장식한 아이스 블루 다이얼을 갖추었다. 다이얼에는 아더비어슈자, 각면 차리한 시가 표식과 시가터블이 우아하고 정교한 멋을 배가한다. 코트 드 주네브로 장식한 브러쉬와 카이아웃 디자인의 로터를 갖춘 칼라버 7140을 탑재했다. 문의 02-545-4855

TAG HEUER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판다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판다** 태그하이어의 역사적인 오미주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의 결과물이다. 잭 호이어가 1960년대 후반에 선보인 슬버 다이얼에 블랙 세라믹 소재의 세라믹롬 베젤을 영감을 받아 기동성의 장점을 부각해 완성했다. 39mm 스틸 케이스에 슬버 스테이브라시 처리한 다이얼이 현대적인 세련미를 돋보이게 하며 2개의 블랙 컬러 서브 카운터를 배치해 아이코닉한 바이컴팩스 판다 다이얼을 완성한다.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와인딩과 새로운 방패 모양의 로터를 갖춘, 80시간 리저브를 자랑하는 자레 무브먼트 TH20-00로 구동한다. **미노 스몰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레드와 블루 컬러 에디션으로 구성해 선보였다.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한 다이얼의 3시 방향 크로노그래프, 9시 방향 스몰릿 세컨즈 무브먼트를 가늠하는 리트프링테가 쓰인 서브 다이얼이 위치한다. 보세 매뉴팩처 플라티네와 칼라베라이션해 제작한 TH81-00 기계식 스몰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칼라버를 탑재했다. 문의 02-548-6021



미노 스몰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IWC



**포르투기저 아타넬 캘린더** 윤년을 생략하는 그레고리력의 복잡한 예외 규칙까지 고려하고 3999년까지 윤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IWC 최초의 세라믹 퍼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한 워치를 출시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달의 형상을 재현한 '더블 문'(Double Moon™) 인디케이터가 결합된 다이얼이 특징이다. 또 케이스의 표면은 폴리싱 및 브러싱 처리해 정교하게 마감된 플라티넘으로 완성했다. 우수한 효율성을 자랑하는 팔라톤 와인딩 시스템이 적용된 자체 제작 52640 칼라버를 탑재했고,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충한다. **포르투기저 파페추얼 캘린더 44** 18K 화이트 골드 에 호라이즌 블루와 톤 컬러의 다이얼을 매치한 2종의 모델과 18K 아머 골드(Armore Gold®)에 옵티드 및 슬버 도금 다이얼을 결합한 2종의 모델로 완성된 총 4종의 제플로로 만날 수 있다. 15점의 투명 레커로 정교하게 마감된 후 폴리싱 처리를 통해 고풍택을 구현한 다이얼은 시각적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두 팔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갖춘 IWC 자체 제작 52616 칼라버로 구동하며,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2**와 **오토매틱 40** 기존 디자인에서 탈피해 재설계한 케이스 구조에 날렵한 측면 윤곽을 결합해 남다른 품격과 세련미를 더한다. 더블 박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15점의 투명 레커로 정교하게 마감된 다이얼을 감상할 수 있는 탁월한 시야를 제공한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에서는 세라믹 부품으로 구성된 팔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적용한 IWC 자체 제작 52000 및 82000 칼라버를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의 매력을 강조하는 호라이즌 블루, 옐로, 톤 컬러 다이얼로 구성된다. 문의 1670-7363



포르투기저 파페추얼 캘린더 44



# Dress to impress

열정과 우아함을 동시에 간직한  
초여름의 스타일링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jung ji eun**



핀도지 핸드 프린티드 트위드  
소재 드레스, 램 스킨 소재의  
하이 부츠, 메탈 글라스 소재의  
롱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사별**.

그레이 컬러의 스트라이프 플란넬  
재킷, 베이비 블루 컬러의 레이스  
필라시핀 자수 크롭트 톱,  
램 스킨 소재의 미니 지퍼 스커트,  
크로스 오버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러먼.



실크 소재의 테크니컬 베일  
드레스, 레드 컬러 세팅  
핀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비대칭으로 트레이프를 잡고 옆 트임을  
넣은 블러드 레드 컬러 비스코스 벨벳  
소재의 울타네 드레스 8백20만원,  
블랙 레더 소재의 핀 트위스트 샌들  
가격 미정, 튜더 로즈 아이링 가격 미정  
모두 **알렉산더 맥퀸**.



울 소재의 코트 5백90만원, 실크 및  
니트 소재의 보다스트 3백48만원,  
실크 및 니트 소재의 끈지 짜임 스커트  
2백22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샌들  
1백15만원 모두 **에르메스**.



프린스 오브 웨일스 체크를 다한  
비스코스 코튼 블렌드의 오버사이즈 재킷,  
스트라이프 패턴의 레귤러 핏 셔츠,  
브라톱, 스웨디 자카드 모티브의  
니트 쇼츠, 장식이 있는 앵글  
랩 펌프스, 스웨디 패턴의 삭스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튼**.



블루 컬러 스트레치 코튼 피케 소재의 폴로 99만원, 세미 매트 램스킨 소재의 쇼츠 가격 미정, 브라운트 스웨이드 소재의 코믹 캠프스 1백50만원, 스텔링 실버 & 크리스탈 소재의 글리터 프래그먼트 아쿠아프 가격 미정, 글리터 프래그먼트 더블 링 3백50만원 모두 **로아베**.



올 시즌의 옐로 컬러 유틸리티 톱 3백만원대, 모헤어 소재의 비대칭 웨이스트 캐주얼 및 팬츠 2백만원대, 카프 스킨 소재의 화이트 컬러 밴디 필로 코트 슈즈 1백만원대, 메탈 소재의 골드 컬러 밴디 필로 라지 아아쿠프 1백만원대 모두 **밴디**.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Inga Markova**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사설 080-805-9628,  
www.chanel.com

에르메스 02-542-6622

프라다 02-3442-1830

로아베 02-6905-3470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드리스 반 노트 1644-4490

밴디 02-544-1925

셀린스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베레스09(BERES09) 라인을 대표하는 4스타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혼마 골프의 모델, 배우 김태희.



# Masterpiece on the field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 일본 장인 정신이 깃든 혼마의 프리미엄 라인에서 베레스 시리즈 09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됐다. 필드 위에 선 골퍼들에게 최고의 플레이를 선사할 차세대.

플레이 품격을 높여줄 베스트 초이스, 베레스09(BERES09) 손건넌 손바가 길리는 긴장감 멘드는 필드 위에서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골퍼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어떤 플레이 환경에서도 골퍼의 스윙 실력을 완성해 줄 클럽이다. 오늘날 골퍼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클럽이 나왔지만 골퍼의 동반자가 되어줄 가장 중요한 장비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인 우수한 비행성과 비거리 성능을 갖춘 골프 클럽을 찾고 있다면, 베레스 09(BERES09) 시리즈가 탁월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일본 아키타현 사키타에 위치한 프리미엄 골프 제조사인 장인 정신을 담은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 그리고 예술성을 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혼마는 본질에 충실한 세계 최고의 골프 클럽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지금까지 수많은 우수한 클럽을 선보였는데, 그중 베레스는 혼마를 대표하는 라인이다. 일본 사키타 공장에서 가장 노련한 기술을 갖춘 장인이 헤드부터 샤프트까지 골프 클럽 제조 공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며 혼마의 장밀한 엔지니어링으로 기술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베레스09는 이전에 출시된 베레스 라인의 골프 클럽과 달리 헤드에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마크 샤프트를 장착했으며 드라이버, 페이웨이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또 혼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클럽 등급제인 2스타부터 5스타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모든 수준의 골퍼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출시를 기념해 베레스에서 배우 김태희와 함께한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하며 브랜드 공식 뮤직 선정 소식을

함께 알렸다. 화보 이미지 속 그녀가 들고 있는 4스타 드라이버는 이전 시리즈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고급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한 외관 디자인까지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드라이버의 토(Toe) 부분 무게를 줄여 알고 날렵해진 드로 바이어스 디자인을 적용해 스윙 시 볼이 휘는 것을 최소화했다. 대신 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솔리드 카본을 추가하고 무게중심 설계로 완성해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다. 여기에 저질러 반발력을 높여 볼을 좀 더 빠르게 출발시키는 고강도 티타늄 소재의 쿼드 브리지 파워페이스를 선택해 한층 더 빠른 스피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클럽과 볼이 맞닿는 순간 관용성을 높이고 볼에 강한 힘을 전달하고자 헤드 뒷부분에 약 10g 무게의 스테인리스 웨이트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페이웨이 우드와 유틸리티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 힐 부분에 14g 정도 무게의 텅스텐 니켈 웨이트를 더 했는데, 이는 다운 스윙 중 클럽과 볼이 떨어 나가는 순간 페이스가 열리는 것을 방지해 준다. 크라운과 페이스의 두께도 다르게 적용해 반발력을 높인 것 또한 장점. 마지막으로 아이언에서는 와이드 니켈 페이스 기술을 적용해 무게중심이 분산되어 미스 샷을 처음 경우 볼의 직선 궤적을 일관성 있게 그려준다. 게다가 캐비티 내부에 진동 흡수 수지를 사용해 임팩트 시 부드러운 타격감과 타격음을 느낄 수 있어 골퍼 플레이의 재미를 배가한다. 자고로 골프의 세계에서 승부를 가르는 한 곳 차이를 가져다주는 것은 클럽의 선택, 따뜻한 계절을 맞아 해 리얼링 기회가 많은 요즘, 필드 위 프로다운 면모를 갖추길 베레스09와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2-2140-1800 애프터 서비스



# Dear my Queen

브레게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이자 여왕의 시계라고 불리는 레인드 네이플 라인에 청량하고 우아한 민트 컬러의 위치가 추가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타임피스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브레게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의 신제품인 민트 론칭 이벤트를 선보였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론칭한 이 타임피스는 여성성에 경의를 표하고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여성 트렌드세터와 선구자를 향한 진정한 찬사를 보낸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의 여동생인 카롤린 뮈라(Caroline Murat)는 이 같은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지성과 문학적 능력을 두루 갖췄으며,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수집했다. 예술뿐만 아니라 왕국 내의 경제, 사회,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그녀는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거나 산호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프로젝트에 앞장섰다. 특히 카롤린 뮈라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Abraham-Louis Breguet)의 타임피스에 매력을 느껴 30개 이상의 인상적인 위치 컬렉션을 수집했다.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시계를 소투아르 네크리스로 연출하곤 했지만, 카롤린 뮈라는 매우 대담하고 아방가르드하게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에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타임피스를 의뢰했다. 때는 1810년으로, 브레게의 창립자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브레게 아카이브는 이 시계가 처음 카롤린 뮈라에게 전달된 1812년, 그리고 이후 1849년과 1855년에 진행된 수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사라진 이 타임피스의 역사와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실버 기요세 다이얼을 장착한 길쭉한 장방형의 시계는 쿼터 리퍼터, 문페이스, 온도계 같은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갖췄으며, 골드 스텔드로 서로 교차된 브레이슬릿의 형태를 띤다. 이토록 승고한 브레게만의 위치메이킹의 향토리를 담아 레인드 네이플 8918 민트를 새롭게 출시했

다. 머더오브플 다이얼 위에 1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했으며 여기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개발한 포켓 위치에서 영감을 받은 심벌이 비밀스럽게 자리한 블랙 미닛 트레이 돋보인다. 아이코닉한 브레게의 오픈 텀 헨즈가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동시에 6시 방향의 배(pear) 모양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린 컬러의 이중 그림자는 아라비아숫자에 입체성을 더하고, 브레게 정품임을 증명하는 시계의 고유 번호는 11시와 12시 사이에 자리한다. 브레게 창립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전통으로 시계의 고유 번호를 이용해 타임피스를 추적할 수 있다. 내부 플랜지와 베젤은 1백17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더욱 찬란히 빛나는 다이얼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여왕의 시계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브라운올레트 컷 다이아몬드가 크라운을 화려 밝힌다. 마지막으로 2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폴딩 클래스스프에는 악어가죽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다. 36.5x28.45mm의 아름다운 타원형 케이스 안에는 1백91개의 부품과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537/3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가 자리하며, 실리콘으로 제작한 밸런스 스프링 및 인-라인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했다. 실리콘 소재는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계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에서



1, 2 레인드 네이플 민트 론칭 행사장, 3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는 36.5x28.45mm의 타원형 케이스를 갖춘 레인드 네이플 8918 민트.

는 플래티넘 웨이트와 더불어 무브먼트를 장식하는 코트 드 주네브(Côtes de Genève) 디테일, 폴리싱 처리한 스크루, 그리고 챔퍼링을 볼 수 있다. 모든 칼리버 부품은 브레게의 전통에 따라 매우 정교한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문의 02-3479-1008 애프터 서비스

# Absolutely Majestic

다시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르 보야주 레코망쎬(Le Voyage Recommencé)가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공개됐다. 보면 볼수록 정교함과 완성도가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는 동시에 매종의 정수를 한껏 느껴볼 수 있다.

까르띠에의 독보적이고 풍성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서울을 찾았다. 매종만의 정체성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까르띠에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주얼리 컬렉션이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르 보야주 레코망쎬 하이 주얼리는 디자인과 장인이 한 세기 이상 매종을 상징해온 창조적인 분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 의미가 깊다. 본질적인 디자인, 기하학, 추상, 볼륨과 구조, 컬러 팔레트, 자연과 세계의 위대한 문화에서 얻은 영감이 담긴 주얼리 컬렉션은 수많은 분야를 넘나들뿐더러, 창조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제안한다. 르 보야주 레코망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마지막 챕터는 조선시대 이래로 2백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장소인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공개됐다.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잘 알려진 석파정은 조선 후기부터 한국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한국적인 시각을 투영해 선보인 르 보야주 레코망쎬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담았다. 특히 한국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현희 작가와 컬래버레이션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보야주 레코망쎬의 마지막 챕터를 서울에서 장식하며, 이를 기념하는 갈



라 디너도 진행했다. 특히 서울에서 개최한 첫 번째 글로벌 하이 주얼리 이벤트를 접에서 더욱 의미 있다. 1955년 개관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레나형 체육관인 잠실체육관은 까르띠에를 위해 럭셔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갈라 디너는 전 세계에 최다 미술관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해 명실공히 최고의 현대 프랑스 요리 셰프로 명성을 다진 알랑 뒤카스(Alain Ducasse)가 담당했다. 국내에서 럭셔리 브랜드와의 첫 번째 협업으로, 이번 갈라 디너를 위해 스페셜 메뉴를 직접 개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그래미상(Grammy Award), 토니상(Tony Award), 에미상(Emmy Award) 등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뮤지컬 & 팝 뮤직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은 이번 갈라를 위해 총 3곡의 오케스트라곡을 작곡했다. 이 곡들은 음악감독 김문정이 이끌고 있는 The M.C.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김문정 음악감독 또한 직접 지휘에 참여해 협업을 이끌었다. 갈라 디너는 모델 겸 배우 장윤주, 모델 김성희, 박지혜 등 톱 모델을 비롯한 16인이 선보인 주얼리 쇼로 절정을 맞이하며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하이 주얼리 피스를 착용하고 런웨이를 펼쳤다. 이외에도 원장현류 대금산조 창시자인 대금 명인 원장현이 연주한 그의 대표곡 '날개와 국립현대

무용단 단장 김성용이 연출한 현대무용 공연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한국의 바이트를 전해주었다. 이날 갈라 디너에는 지수, 스트레이 키즈 현진, 배두나, 유태오, 고수 등 프렌즈 오브 매종들이 참석해 르 보야주 레코망쎬와 까르띠에의 갈라 디너를 더욱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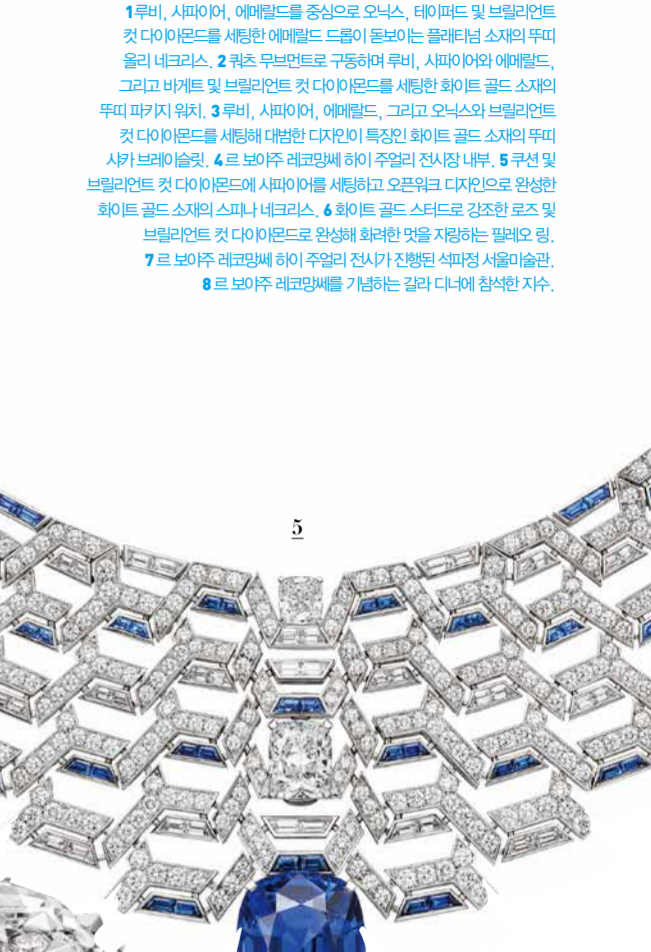
**뚜띠 프루티와 르 보야주 레코망쎬 컬렉션**  
러시아에서 극동아시아,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까르띠에의 열정은 창립 초창기부터 이어졌다. 1911년에 처음 인도를 방문한 자크 까르띠에(Jacques Cartier)는 이후로도 수차례 여행을 이어갔다. 인도의 화려함에 매료된 그는 인도의 부와 영감의 원천, 그리고 17세기 무굴 전통에 따라 조각한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의 보석을 탐구했다. 1920년대 중반, 이러한 보석들은 세련된 나뭇잎과 과일, 베리 모티브의 기원이 되어 전례 없이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뚜띠 프루티라고 불리는 이 주얼리는 이후 까르띠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이번 하이 주얼리 공개 행사에서 독보적인 화려함을 자랑한 뚜띠 홀리(Tutti Holi)를 소개한다. 뚜띠 프루티 전통에 충실한 네크리스로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구성을 강조한다. 총 7.73캐럿의 버마산 루비를 중심으로 총 12.10캐럿의 실론산 사파이어, 총



12.59캐럿의 잠비아산 에메랄드를 마치 칩처럼 위아래로 세팅했다. 펜던트로 장식한 32.10캐럿의 잠비아산 조각 에메랄드 드롭이 경이로운 자태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화려한 축을 따라 12개의 조화로운 에메랄드를 감싸는 파베 세팅 아라베스크 구조로 여성스러운 V자 형태의 대칭적인 배열이 펼쳐진다. 곳곳에 섬세하게 세팅한 오픈워크 디자인에 화려함을 더해 패턴을 강조하며, 음영을 만들어 내 날렵하면서도 독창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변형 가능한 주얼리에 관한 까르띠에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뚜띠 올리 네크리스는 탈착 가능한 두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에메랄드 펜던트와 뒷면 클러스프 아래 자리한 나뭇잎 모티브를 선보인다. 나뭇잎 모티브는 에메랄드 펜던트를 장식하거나 다채로운 브로치로 변신할 수 있다. 다음은 뚜띠 샤카(Tutti Shaakha), 플로럴 모티브로 조각한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루비를 결합한 최초의 주얼리가 탄생한 지 약 1백 년이 지난 후, 까르띠에는 전례 없는 브레이슬릿을 선보이기 위해 뚜띠 프루티 테마를 계속 탐구했다. 그 결



과 탄생한 뚜띠 샤카는 플로럴 모티브를 새긴 진귀한 루비 양상블을 강조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독특한 육각형 커팅이 특징이다. 젤 스톤은 바로크 형태를 따라 엇갈린 패턴으로 배열했으며, 각 스톤은 나란히 배열한 다른 스톤들과 다소 다르다. 오픈워크를 가미한 기하학적 모티브가 루비와 교차하며 강렬한 대비를 선사한다. 이러한 조합의 강렬한 그래픽 효과에 대응하는 에메랄드와 루비, 사파이어로 표현한 나뭇잎이 디자인에 유기적인 풍성함과 활기를 더해준다. 뚜띠 프루티로 완성한 브레이슬릿 위치인 뚜띠 파키지(Tutti Pachisi)도 살펴보자. 세련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다이얼 주위로 2개의 카보숑 컷 루비와 나뭇잎 모양으로 조각한 젤 스톤 세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전통적으로 풍성함이 특징인 뚜띠 프루티 크리에이션 중 하나로 해당 오브제는 배열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하학적 조화가 돋보이는 섬세한 유희를 통해 수직 또는 수평 구조를 구성한다. 우아한 역동성과 강렬한 그래픽디자인이 공기처럼 가벼운 리듬감을 부여한다. 뚜띠 프루티 컬렉션 외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대범한 하이 주얼리도 있다. 꺾인 선들과 교차하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오픈워크의 정수를 보여주는 스피나 네크리스를 살펴보자. 가운데 2개의 총 4.56캐럿 쿠션 컷 다이아몬드와 총 29.16캐럿 실론산 사파이어가 함께 어우러지며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또 주얼리가 피부 위에서 마치 패브릭처럼 부드럽게 물결치는데, 회전시키면 굴곡이 뒤집히면서 네 크리스에서 티아라로 변신한다. 이 머리 장식



은 특별한 프레임으로 만들어 이마에 착용하여 올릴 수 있으며 놀랍도록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는 까르띠에가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의 결과물이자 매종의 진정한 시그처라 할 수 있다. 그다음 펠레오 링은 성계를 모티브로 총 5.12캐럿의 육각형 다이아몬드를 자유롭게 해석한 결과물이다. 화이트 골드 스타드로 강조한 로즈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구 모양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텍스처가 돋보이는 생기 넘치는 소재를 통해 독보적인 빈찍임을 느낄 수 있으며, 매혹적인 볼륨감을 즐길 수 있다. 문의 1877-4326 **에터널카리앙**





# More than Diversity

‘여전히 홍콩에서 자유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답하자면 “그렇다.” 지금 홍콩은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단순히 국제면을 장식한 뉴스를 보고 가졌던 의문이 기우에 가깝다고 여겨질 만큼, 홍콩의 품은 여전히 넓고 견재해 보였고, 눈에 익숙한 듯하지만 생경한 도시의 풍경에서 결코 정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실감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홍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심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의 변화. 그중 센트럴 지역의 포시즌스 호텔 홍콩은 특히 눈에 띄었다. 2005년 9월 문을 연 이 호텔은 2021년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2022년에 완성해 5성급 호텔로 다시 한번 입지를 굳히었다. 3~4년 전, 전 세계적인 여행 및 레저 산업이 불황을 맞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번성을 이룬 것. 해외여행 수요는 본격적인 엔데믹 산인이 이루어진 2023년 5월이 지나자 회복세를 보였으며 포시즌스 호텔 홍콩의 레노베이션은 슬슬 다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솔깃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홍콩으로 발걸음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포시즌스 호텔 홍콩 맞은편에 개관한 M+ 뮤지엄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헤어초그 & 드 뫼논이 설계해 화제를 모은 복합 문화 시설과 아트 파크가 아시아 문화 예술의 허브로 부상한 홍콩의 오라를 드러낸다. 전 세계 여행객부터 예술 애호가까지 다양한 국적과 취향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홍콩은 늦은 밤에도 거리를 활짝 밝히는 야경 속 활기차고 다양한 삶과 자유를 역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포시즌스 호텔이 선사하는 이상적 휴식

포시즌스 호텔 홍콩의 객실은 도심 뷰를 만끽하기에 최적의 구조를 갖추었다. 뽀뽀하게 솟은 마천루가 긴장감을 자아내는 뷰와 방이든 편안한 전망 판 위에 실 새 없이 펼쳐지는 타이포로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임을 실감시키는 홍콩 국제상업센터와 빅토리아 허버 뷰 등 매력적인 풍경을 다각도에

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포시즌스 호텔 홍콩의 강점이다. 실제 프리미엄 퍼크 뷰 룸, 슈퍼리어 허버 뷰 룸 등 객실 이룸만 봐도 알 수 있듯, 카타란 우리 통창을 채우는 도심 풍경은 호텔 신을 구성하는 퍼즐의 한 퍼스처럼 방을 고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3박 4일의 여행에선 28층 슈퍼리어 허버 뷰 코너 스위트에 머물렀다. 층마다 1개씩 배치된 코너 스위트는 홍콩이라는 다국적 도시에서 프라이빗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에게 적격이다. 객실 문을 열면 중앙적인 인테리어로 장식한 거실이 나온다. 다이닝 테이블과 소파를 지나 침실로 가는 사이엔 긴편한 스넥 및 티와 주류를 즐길 수 있는 미니바가 자리한다. 자기 전 혼술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을 고려한 동선이다. 침실 내부에는 1개의 널찍한 킹 베드와 놓여 있어 빅토리아 허버 뷰를 바라보며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뒤편에는 화장실을 마주 보는 구도로 워크 인 오픈 클로젯이 이어져 공간 활용도가 높다.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와 분리된 큰 욕조, 2인용 세면대, 다이닝 헤어드라이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에메네티 등을 갖추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에 안락한 공간이 되어 준다. 이룸에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원하는 경험과의 ‘실제적인’ 접점이 궁극이었다. 고객의 세밀한 요구가 호텔에서 이상적으로 충족될 때, 곧 호텔 서비스는 한 곳 치의 특별함을 입은 프라이빗한 경험으로 각인되니까. 특히 요즘처럼 럭셔리에 대한 정열을 일대일 또는 맞춤형 경험에서 찾는 소비문화가 형성된 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면에서 나를 위한 케어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되찾아준 스파 트리트먼트는 포시즌스 호텔이 선사하는 세심한 배



1 홍콩 센트럴 지역에 위치한 포시즌스 호텔 홍콩의 외부 전경. 2 프렌치 레스토랑 카프리스의 내부. 정통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던함을 가미한 레스토랑 메뉴의 특징을 담은 인테리어를 보인다. 3 이번 일정에 머무른 슈퍼리어 허버 뷰 코너 스위트의 거실.

려처럼 여겨진다. 특히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우레다(Ayureda)’ 오일 테라피를 고려해보자. 평소 스트레스 상태, 아픈 부위 등을 체크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전문 테라피스트가 각자에게 맞는 오일을 추천해준다. 그리고 테라피스트의 안내를 따라 상응물의 진동음만이 들리는 호젓한 공간에서 눈을 감으면 도시의 분주함과 멀어진 채 테라피가 시작된다. 고대 인도의 전통 요법인 이우레다 마사지 테라피는 천연 오일을 활용해 신체 내 독소의 배출, 피로 해소와 혈액순환을 돕는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고 항상 목과 어깨가 빠끈한 에디터의 경우엔 뜨끈한 허브 오일을 이마 위에 떨어뜨리며 신경 체계를 진정시키는 허브양기와 시로다라(Abhyanga and Shirodhara)를 추천받았다. 1시간가량 눈을 붙였을까, 다음 일정을 위해 나서는 에디터의 몸과 마음은 일상의 번뇌를 지운 듯 가볍기만 했다.

##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응축한 다이닝

포시즌스 호텔 홍콩을 소개할 때는 ‘미슐랭 스타 8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 세계 베스트 바 50에 이름을 올린 카페 테라피스트(ARGO). 웰빙 드링크로 인종맞은 쿠이 베이커가 담긴 샴페인이나 오자 혁신적인 스파릿을 주메뉴로 선보이는 이곳의 감각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었다. 둘째 날 방문한 프렌치 레스토랑 ‘카프리스(Caprice)’는 수석 셰프 기욤 갈리오(Guillaume Gallio)가 이끄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다. 셰프 본인 이 시트 디렉팅 멤버에서인 만큼, 레스토랑 곳곳에선 와인을 대하는 정성과 열정을 눈으로 보고 맛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우선 오픈 키친을 지나면 와이 나라처럼 보이는, 삼면이 와인 셀러로 둘러싸인 비닐스러온 공간이 나온다. 중앙 롱 테이블 건너편으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오로지 치즈만 보관하는 냉장 공간도 갖추었다. 재료에 대한 치밀한 정성을 살펴보며 감성과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셰프의 철학이 어떻게 접시에 담길지 기대에 부풀었다. 화이트 스파리거스와 모젤을 활용한 전채 요리, 페칭 덕 솔라이스와 감귤의 조합이 감칠맛을 내는 메인 요리 등이 이어졌다. 이윽고 6시에 달하는 2014산산 샤토 디쥘 제로망 보틀 와인도 등장하고, 정제된 열대 과일 향이 곁들여진다. 이상적인 맛의 조합이 완성되었다. 이외에도 전통 중수담으로서 최고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롱킹헌(Lung King Heen)’, 이탈리아 로마 카세 콘센트로 13가지 산화천의 코스를 내놓는 ‘노이(Noi)’, 에도 시대 덴푸라를 선보이는 덴푸라 우치쓰(Tempura Uchitsu) 등 메인 레스토랑을 둘러보면, 다국적 문화의 아름다움이 허끝의 감각으로 전해진다.

## 여행의 기술을 알려주는 캐세이퍼시픽

출발과 도착, 그리고 공항과 시내에서 보내는 시간 모두가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원한다면 캐세이퍼시픽 노선을 이용해 보자. 홍콩 기반의 포퍼시픽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은 인천-홍콩 노선을 주 2회 운항해 일정에 맞게 유연하게 고를 수 있다. 올 3분기부터 운항 예정인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아리아 스위트룸이 등장하면 여행길 혜택이 쓸쓸한데, 우선 좌석간 마진이 커리어와 완전 평면형 침대로 전환되는 좌석을 갖추어 최대한 편안한 시공간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4시간가량의 비행 시간 가운데 적절한 틈을 두고 코스 요리가 콘센트로 제공되는 기내수도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라운지가 공항 속 작은 호텔처럼 기능한다는 것. 에디터의 경우, 들어가는 날엔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더 피어(The Pier)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다. 반박의 대기 시간, 비행장부터 터미널까지 공항에서 시간각 연속되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지만, 라운지에 들어간 것은 홍콩에서 남은 몇 시간을 좀 더 잘 써보고 싶어서였다. 라운지는 마치 지하 방파를 연상시키듯이 제타미에서 가까운 지하 1층에 위치하는데 우선 짐을 풀고, 누들 바에 들러 탄탄함을 먹고, 조용한 티 라운지가 공항에서 구입한 책과 잡지를 읽거나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다. 라운지 안쪽 깊숙이에는 데이트베 향수의 넓은 침대를 갖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노곤함을 달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샤워실과 고품질 무드 속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더 피어 일등석 라운지의 데스스위트 등 캐세이퍼시픽이 갖춘 다양한 라운지를 둘러보면 단순한 사치스러움보다 공항 속 또 다른 문화에 기쁘다. 홍콩 국제공항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자연스레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과 팔디에 욕심을 낼 수밖에. 짐을 따라 모든 순간이 새로운 여행에서도 누릴 수 있는 편안함, 효율성, 사적인 시공간의 기쁨은 캐세이퍼시픽이 전하는 여행의 기술이다. 글 김민정 퍼시픽에어라인스 홍콩 현지 취재

# Serum Game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염원을 가득 담았다. 독자적인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응축한 궁극의 에센스 6. photographed by oh hyeon sa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리프트업마인 레드엔스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밤사이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과 탄력 저하를 집중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 과학적 접근법과 활력 과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리뉴러 테크놀로지+™로 피부부에 광채를 부여하고 건강한 피부 시아미를 선사한다. 40ml 2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클레드보 보떼 피렐 세럼 수프림 N 피부 탄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 내부와 표면을 동시에 케어하는 4차원 스킨케어를 신세해 한층 탄력 있고 정돈된 피부 결을 선사한다. 또 루트 하이브리드 콤플렉스를 함유해 건강한 피부 활력을 부여한다. 40ml 37만15천원.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디올 프레스티지 리프백 타 프리미에 응축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부는 루즈 드 그린병의 첫 꽃발오리의 활력을 오롯이 담아낸 독보적인 세럼이다. 특별한 복합체 루스발타이드 프리미에가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어 잔주름을 완화하고 고르스러운 광채를 강조한다. 30ml 89만원. 문의 080-342-9500 리보라리 스킨 케어 에센스 인 로션 클렌징 직후 바로 사용하는 프리 세럼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독자적인 케어 아 워터, 케어아 추출물, 그리고 셀룰라 콤플렉스가 조화를 이루는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이다. 피부 깊은 곳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해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 150ml 43만원. 문의 02-6390-1170 라퓨란 코스메틱 라퓨란 힐러 민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비르 자피자 피부에 쏙 스며드는 포뮬러로, 주름 개선은 도울 뿐만 아니라 미백과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피부 각질을 개선하는 효능까지 있어 피부 처짐도를 낮추고 은은한 광채를 부여한다. 30ml 59만원. 문의 031-8039-1500 발몽 세럼 프리시유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고농축 탄력 세럼이다. 섬세하고 상한 텍스처가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밀도를 높여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준다. 특히 피도 알파인 가드에서 재배하고 추출한 에카 나사아와 로자 모스카타 생분해 피부 펩티드를 함유한 데 탁월하다. 30ml 86만 원. 문의 070-4352-5203 에디터 윤지영

이슈에어리얼

# editor's Pick

다가올 여름을 맞이해 뷰티 서랍장을 새롭게 바꿔볼 시간.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센로랑 뷰티 라브시인 캔디 글로우 #44B 누드 라벨리 에 미치 립 오일**을 바른 듯 촉촉한 수분감과 촉촉함이 일품이다. 립스틱을 바른지 입술 정도로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에 구약 처방이 될 듯, 누드한 컬러지만 본래의 입술 컬러와 조화를 이루며 은은한 광택을 부여해 고급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 3.1g 4만9천원. 문의 080-835-0089\_by 에디터 선정

**트루통 디오로** 연을 건조 숨을 깊이 들이쉬면 지중해 해변이 보이는 어느 별칭의 향기로운 정원, 거대한 빌라나 인까지 폭 넓은 카타나 무의 오렌지 블랑시 향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 외에도 베르가모트와 가스니아, 로즈메리가 신선하게 코를 자극한다. 270g 19만원. 문의 02-6905-3324\_by 에디터 정리

**칼리안 파르 인페라레** 티 재스민 그린 티에 대한 신화하고 현대적인 경의를 표시한 향. 정밀 신기하게도 뿌리까지 고급스러운 초차 향이 온몸을 감싼다. 칼리안 만의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질투받은 파파자만 보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향. 재스민 섹터 앰플루트를 품은 그린 티 어코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노트라 더 기쁨이 느껴진다. 50ml 34만8천원. 문의 02-514-5167\_by 에디터 선정

**아쿠아 리프라인 비건 이크 크림** 얼굴에 닿지 않는 뽀뽀한 울라와 아칭 지체으로 세안한 후 꾸준히 발라보니 트라블도 진정되고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진 나만 알고 싶은 크림이잖아. 진정 특화 성분인 아미노산과 베타글리세롤 및 티트리 추출을 담은 달고 비건 인종을 받은 제품이라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50ml 5만 2천원. 문의 070-4647-3182\_by 에디터 선정

**파라사발 퍼플드 리워드스 로즈레탈** 까다로운 제조 공정과 엄선된 재료로 만들었다. 물, 소금을 포함한 원료의 95% 이상이 천연 유래 원료이며 10% 이상 유기농 성분만 받을 수 있는 EU의 ECOCERT 인증도 받았다. 코어부터 아저 오일 성분들이 들어 있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마스크와 로즈의 진향이 남는다. 500ml 4만4천원. 문의 02-2135-7911\_by 에디터 선정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드 퍼두어 인트렌스**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오후만 되어도 금방 메이크업 무너진다면 이 제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도에 따라 미묘한 색상으로 빛나는 컬러 코팅된 필름 함유해 본인의 피부 컬러를 잡아줘 한층 더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연출한다. 또 뛰어난 고정력으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준다. 10g 6만1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선정

**이슬 B 트리플 C 페이스 밸런싱 젤** 칙칙했던 피부톤을 맑고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개성으로 애정하는 뷰티팬. 피부 진정은 물론 화사한 톤을 만들어주는 비타민 B와 C 성분이 들어 있어 비르엔 건강을 물론 스킨케어까지 더해주는 듯한 느낌이다. 매트한 질감과 고농축 젤 타입이라서 보편적 방에 자기 전 바르는걸 추천. 60ml 15만3천원. 문의 1800-1987\_by 에디터 선정

**리프라인 스킨 케어 미스트** 공기 가 탁한 날씨에 오래 보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이럴 때 리프라인에서 최초로 선보인 미스트를 얼굴에 2~3번 골고루 뿌려주면 케어미 스킨이 수분을 머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마치 금한 물을 고르보다 피부 속까지 건강하게 채워주는 느낌 도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라 기쁨에 날아다니고 수시로 뿌리기 좋다. 50ml 25만3천원. 문의 02-6390-1148\_by 에디터 선정

**탈라디움 리큐어 빌리 코르레티** 미 립밤의 보습력과 립스틱의 발색을 한 번에 담은 인능 아이템이다. 무엇보다 고급질 식물성 오일과 리큐어 빌이 색상을 투명하고 고르게 분산시켜 자주 덧칠해도 진해지거나 텁텁하지 않고, 항상 맑고 내추럴한 입술로 유지한다. 메이크업하기 귀찮은 날엔 이 제품을 활용해볼 것. 4g 2만8천원. 문의 02-515-2229\_by 에디터 선정

**아베다 인버터 울트라 아드밴스드 리베라이징 스크럽 세럼** 겨울을 겪고 난 후 부스스하고 푸석해지는 마른감이 오하면 스킨케어라고는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 지체분하고 없어 보여 아자한 신성 쓰이는 게 아니다. 영양과 윤기 공급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불꽃향 개성에도 효과적. 모든 헤어 타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보다 향기가 더 부드럽다. 150ml 9만5천원. 문의 02-3440-2905\_by 에디터 선정

**모로코인 울트라 트리트먼트 파우더** 갈라지고 푸석한 모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므로 유명한 모로코인 울트라. 기존 제품도 충분히 훌륭했는데 헤어 톤을 보정해주는 바이올렛 색소를 추가했다. 환상적인 양배의 컬러 유지 기능을 더한 것. 가벼운 사용감은 그대로이며, 부드러운 마릿질 유지에 효과적이다. 50ml 3만7천원. 문의 1666-5125\_by 에디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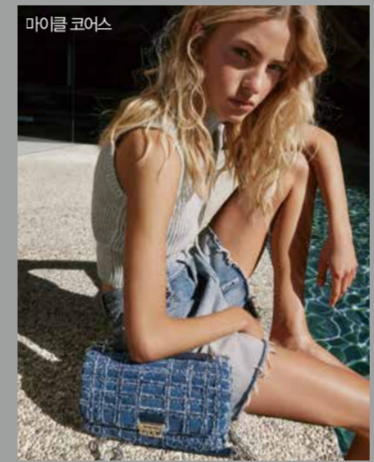
**다후 비헌 자생 에센스** 이 안티에이징 에센스의 효능은 아침 세안할 때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다. 세안 시 얼굴에 닿는 첫 손길에서 푸석함과 오물이 느껴지지 않고,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 피부 장벽 개선 효능이 뛰어난 NAD Power24™를 함유해 에-1를 공급한다. 쏘쏘하지만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끈적이지 않지는 제품은 정말이다. 50ml 16만1천원. 문의 080-023-7007\_by 에디터 선정

**다후 뷰티 텍스처라이저 아이 팔레트 #003 울트라 에센스** 다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시크리 아이템으로 내추럴한 룩부터 대담한 룩까지 프로페셔널한 아이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해 가성비 좋다. 체크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컬러를 함께 구성해 실용적, 해롭지 않다면 좋은 에센스 아이템이다. 10g 7만8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선정



#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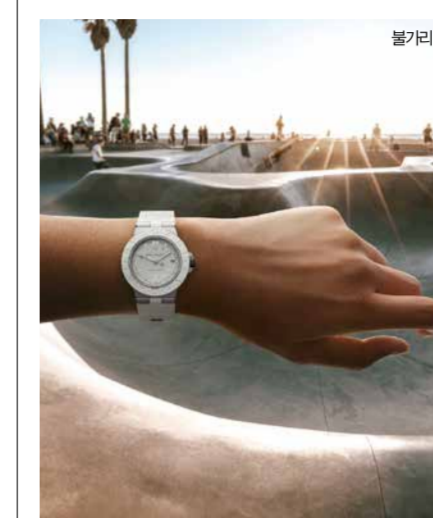
FASHION



**파비어나 팔리피** 클래식한 무드의 셋업 제인 파비어나 팔리피가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더한 셋업을 제안한다. 부드러운 비스코스 소재로 제작한 화이트 컬러의 니트 톱과 우아한 실루엣을 담은 플라어스커트를 매치했으며, 은은하게 반짝이는 스티드 디테일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문의 02-6960-0843

**마이클 코어스** 여름의 무드를 담은 데님 컬렉션 출시 때 시즌 러시리한 무드와 실용성이 공존하는 마이클 코어스가 특별한 데님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 데님 소재가 주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록부터 다채로운 액세서리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메인 아이템인 슬더와 샌들에는 여름 바다가 연상되는 블루 컬러의 격자 패턴을 담았다. 문의 02-2143-1792

**장ishi** 인기노쿠르 백 장ishi에서 새로운 인티고나 큐브 백을 출시했다. 기하학적인 실루엣으로 완성한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사이즈는 미니와 나노, 2가지 버전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무드에 따라 크로스보디 백 또는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79-6137



**불가리 불가리 알루미늄 2024 에디션** 불가리에서 새로운 2024 알루미늄 에디션을 공개했다. 3가지 버전으로 선보인 이번 에디션에서 블랙화이트레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다이얼이 포인트인 불가리 알루미늄 GMT 블랙, 8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은은한 에메랄드 컬러로 완성한 불가리 알루미늄 크로노그래프 스메일도, 그리고 1천 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 알루미늄 오토매틱 화이트 등 총 3가지 버전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그라프 갤리아 타이완드점** 실용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갤리아백화점 대전 타임월드점 1층에 새로운 샵을 오픈했다. 새롭게 선보인 이번 샵에서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인목 있는 하이 주얼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라프의 컬렉션 제품을 선보인다. 문의 02-2150-2320

**브레게 레인드 네이틀 8918 민트 컬러 론칭** 브레게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레인드 네이틀 컬렉션의 민트 컬러 출시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뜻한 봄 무드를 자아내는 이번 신제품 민트 컬러와 어울리는 플라워가든 콘센트를 배경으로 진행했으며, 앞서 출시한 레인드 네이틀 8938과 데이/나이트 8999 오토조일러리 등 다양한 컬렉션도 함께 선보였다. 문의 02-3497-1008

**스워로브스키 이탈리아 컬렉션** 공개 스위로브스키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디리아(Idyllia)' 컬렉션을 공개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



**그라프** 갤리아 타이완드점 실용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갤리아백화점 대전 타임월드점 1층에 새로운 샵을 오픈했다. 새롭게 선보인 이번 샵에서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인목 있는 하이 주얼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라프의 컬렉션 제품을 선보인다. 문의 02-2150-2320

**타사키 아코아 진주 네크리스** 타사키가 6월의 탄생석인 진주로 제작한 아코아 진주 네크리스를 제안한다. 자사 양식장에서 탄생한 최상급 진주로 제작했으며, 리본 모양의 클라피프로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의 광채를 느껴볼 수 있는 아코아 진주 네크리스는 타사키 공식 홈페이지(kasaki.co.kr)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다후 파인 주얼리** 각종 다후 컬렉션 다후 파인 주얼리에 서 신제품 각종 다후 컬렉션을 출시한다. 은은하게 빛나는 옐로 또는 핑크 골드 컬러를 더해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번 컬렉션은 플라워 모티브의 아이라부터 링, 브레이슬릿, 그리고 네크리스로 구성되어, 다이아몬드 부분을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더운하루스 한남을 포함해 전 다후 파인 주얼리 공식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02-792-4371

**에르메스 워치** 메탈 브레이슬릿 워치 컬렉션 에르메스 워치에서 잠정 더워지는 날씨에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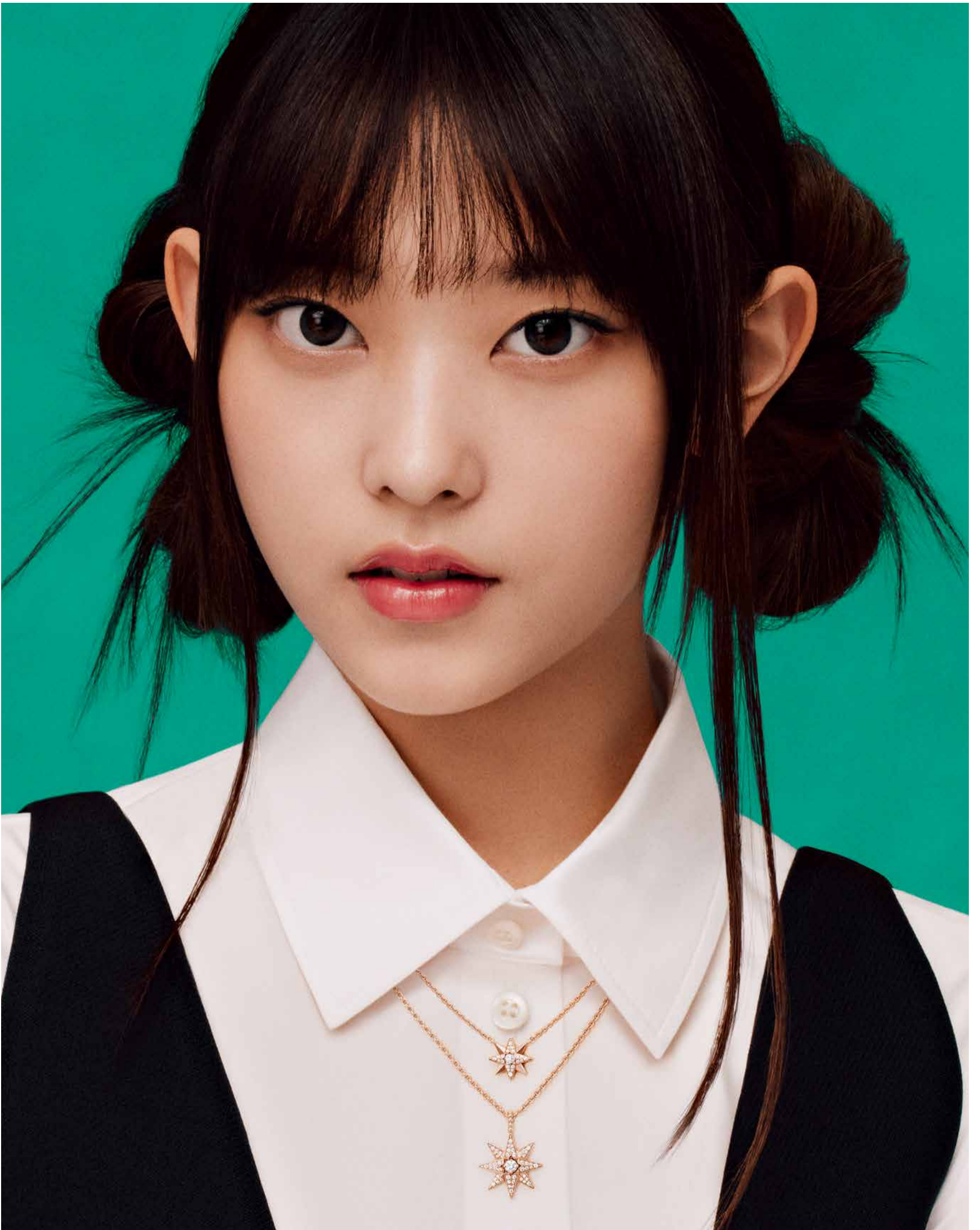


**사antal 뷰티** 웅브르 에센셜 사antal 뷰티에서 아이코닉한 컬러를 재해석한 14가지 컬러의 아이세도, 웅브르 에센셜을 새롭게 공개했다. 허우스의 클래식한 헤리티지를 담아 선보인 이번 신제품은 세이지 오일을 함유해 부드럽고 가벼운 텍스처를 선사하며, 코리아 엑소유리드 에디션으로,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윌리엄, 아이언으로 구성했고 남녀 버전으로 각각 선보였다. 문의 02-2140-1800

JEWEL & WATCH

BEAUTY





#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Yellow gold, pink gold, white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온라인 부띠끄. [Dior.com](http://Dior.com)